

제2176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최정우 포스코 회장 “친환경 경영에 1000억 투입” 10 이인호 무보 사장 “수출회복 총력 지원” 21

코스피(8일) **2064.17** (-46.42P)
코스닥 **668.72** (-25.45P)
환율(달러당 원화) **1182.00** (+11.6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22%** (-0.001%p)

文대통령 “한국기업 피해뎀 맞대응” 경고

“日 수출규제 철회해야” 메시지
“민간거래 제한 전 세계가 우려”
民官 비상대응체제 구축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일본과의 ‘강(強) 대 강(強) 대 강(強)’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약속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기사 3·4·5·9·14·15면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장해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모아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소식과 일본 경제보복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인 전망에 반도체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250원(-2.74%) 내린 4만4400원에, SK하이닉스는 1000원(-1.46%) 떨어진 6만7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2070선 무너진 코스피... 환율도 급등 8일 코스피가 46.42포인트 하락한 2064.17로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5월 31일 이후 한 달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11.6원 오른 1182.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연남동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검토”

“서울 분양가 상승률 너무 높아 시행령 개정, 서민부담 낮춰야”
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 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들쭉이자 사실상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서울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7면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관리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다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사실상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지금은 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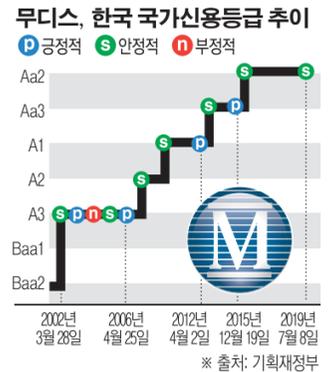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민간 택지로까지 넓히려는 것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02%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분양가가 싸지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 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규제책을 민간 택지까지 확대 도입하면 서울의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단지)을 위축시켜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무디스 “韓, 안정적” 신용등급 ‘Aa2’ 유지

“日 규제, 성장률 둔화 우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올 4월 24~26일 진행된 무디스와 정부의 연례 협의 결과 등이 반영된 것이다.

무디스는 우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2, 안정적)은 매우 견고한 경제 및 재정 펀더멘털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이라는 위험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의존도로 인한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유사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 시 매우 다각화돼 있으며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매우 강력한 제도적 틀이 잠재적 경제·금융안정 위험으로부터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건전한 재정이 경기 대응적 정책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경제적 강점과 제도적 강점에 ‘매우 높음’을, 재정적 강점에는 ‘매우 높음+’를, 리스크 민감도는 ‘보통’ 점수를 매겼다.

무디스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위험으로 한국은 Aa 신용등급 국가에는 특이하게 두드러지는 리스크 민감도가 있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빠른 고령화를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는 도전 요소로 꼽았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전쟁 피해 배상을 둘러싼 분쟁으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적 소재분야 수출에 대한 통제를 옥죄었다고 전하면서 “이에 따라 현재 경제성장률 둔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2’로 올린 뒤 3년 넘게 유지해왔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AA’로 유지 중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택배대란’ 피했다... 우정노조, 총파업 철회

인력 충원 등 중재안 수용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이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우정사업 최초의 파업과 더불어 택배대란에 대한 우려도 한층 덜리게 됐다.

우정노조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앞서 두 차례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우정노조는 각 지방본부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부 회의를 열어 총파업 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행부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우정사업본부와 교섭을 진행한 중재안 결과 잠정 수용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에는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900여명 인력 증원 △내년 주 5일제 근무 시행(농어촌 지역 우선) △우체국 예금 수익의 우편사업 활용 등이 담겼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우편의 적자경영과 예산 부족 문제, 이낙연 총리의 ‘집배원 과로사’ 문제 적극 개선’ 약속, 총파업 시 국민적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우정노조는 올 들어 집배원 9명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토요일 집배 폐지’와 함께 주 5일제 근무 시행,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을 요구했다. 이후 6월 24일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택배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체 택배 시장에서 우체국 택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이지만 민간 택배 회사가 꺼리는 농어촌, 도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삼성·CJ·네이버 담고, 대한항공·LG전자 덜었다

국민연금 주요기업 지분을 변동 현황

기업명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CJ CGV	-	10.02%
삼성SDI	9.84%	9.99%
삼성엔지니어링	10.01%	10.08%
현대위아	12.08%	12.56%
현대글로벌비스	10.03%	10.50%
네이버	10.10%	10.53%
SK텔레콤	10.02%	10.39%
대한항공	11.02%	10.43%
LG전자	9.88%	9.83%
현대모비스	10.10%	10.98%
SK케미칼	10.10%	9.16%
GS	10.15%	9.98%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국민연금 '주식 소유상황 보고서'

CJ CGV 212만443주 저가매수하며 10.02% 신규 취득
대한항공 0.59%P·SK케미칼 0.94%P 등 지분을 줄여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8일 주식 소유상황 보고서를 일괄 공시했다. CJ CGV와 삼성SDI, 네이버 등은 바구니에 담은 반면 대한항공과 LG전자, SK케미칼 등은 덜어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 보고서에서 CJ CGV 주식 10.02%를 새로 신고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1일 장내매수를 통해 CJ CGV 주식 212만443주를 주당 3만7228원에 사들이며 해당 지분을 취득했다.

국민연금의 CJ CGV 매수는 저가 매수 측면이 강하다. CJ CGV는 2016년 터키법

인을 인수하면서 리라화 가치 급락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8년 들어 발생한 터키의 경제위기로 리라화 환율이 급락하며 1776억 원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884억 원의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는데, 국민연금은 이것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준규 부국증권 연구원은 "터키만 제외하면 CJ CGV의 실적은 매우 좋다"며 "2분기에도 외화외 국내 영화 흥행으로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또 삼성과 현대차그룹 관련주를 두루 매수했다. 삼성SDI 지분은 지

난 보고서 당시 9.84%에서 이번 보고서 현재 9.99%로 0.15%포인트(p) 올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0.01%에서 10.08%로 0.07%p 상승했다.

현대위아는 12.08%에서 12.56%로 0.48%p 늘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10.03%에서 10.50%로 증가했다.

신세계는 14.02%에서 14.29%로, 이마트는 10.01%에서 10.41%로 각각 늘었다. 농심은 11.46%에서 12.15%로 0.69%p 올랐다.

국민연금이 최근 신세계푸드 지분을 10% 넘게 끌어올린 것도 주목받고 있다. 2017년 13%를 넘었던 지분이 8%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10% 위로 넘어간 것이어서 추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 지분율은 11.02%에서 10.43%로 0.59%p 하락했다. LG전자는

9.88%에서 9.83%로 0.05%p 내렸다.

현대모비스는 10.10%에서 10.98%로 0.88%p 줄었다. GS는 10.15%에서 9.98%로 0.17%p 감소했다.

SK케미칼은 10.10%에서 9.16%로, SKC는 13.33%에서 12.33%로 각각 내렸다. 최근 국민연금이 하나투어 지분을 급격하게 줄인 것은 1분기에 터진 분식회계 의혹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하나투어 지분율은 13%대에서 최근 3개월 새 7%대로 급락했다. 하나투어의 주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후폭풍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700조 원을 넘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다.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 원 규모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운용수익률은 6.81%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리브라 가치 조작 가능성... 돈세탁·개인정보 유출 우려”

〈페이스북 새 가상화폐〉

금융위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신흥시장 뱅크런 위험
페이스북 "가격 안정성" 주장하지만 가치 보장 방식 불분명

최근 페이스북이 공개한 새로운 가상화폐 '리브라(libra)'가 상용화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을 발표했다.

내년 출시 예정인 리브라는 준비금을 통해 가치를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자산은 리브라 협회에서 보유·관리된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다른 가상화폐와 비교하면 가격 안정성을 갖췄다는 게 페이스북 측 주장이다.

범용성도 크다. 페이스북은 이미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만 24억 명이고, 자회사인 왓츠앱이 15억 명, 인스타그램이 10억 명 수준이다.

하지만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 1달러'로 변동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취급 업소에 투기 세력이 몰리면 가치가 조작될 수 있다. 리브라처럼 1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테더' 역시 지난해 7월 취급 업소 가격이 1달러 32센트까지 올랐다.

가상자산 비교	리브라	비트코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법적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기술기반	프라이빗(허가형) 블록체인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	기술중립적 (통상중앙집중형)
노드수	28개~100개	약 1만 개	1개(통상중앙집중형)
가치	준비금으로 가치보장 (보장 매커니즘 불명확)	내재적 가치 없으며 취급 업소 등 수요·공급으로 결정	기록된 법정통화 금액에 상당(1:1)하는 가치를 보장(환급의무 등 부여)
취득 방법	1 P2P거래 2 취급 업소 통한 매입 3 회원사 통한 상품·용역 제공 *대가로 지불받을 것 추정 *이베이판매자, 우버드라이버 등	1 P2P거래 2 취급 업소 통한 매입 3 채굴	발행자(전자금융업자)로부터 취득(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양도 가능)

기존 금융 시스템과 은행 산업, 금융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우선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가능성이 있다. 24억 명 페이스북 사용자가 은행예금 중 10분

의 1만 리브라에 넣어도 리브라 적립금은 2조 달러(약 2356조 원)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지불능력을 약화하고,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을 야기해 국

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는 위협으로 작용할 거라고 말한다.

은행을 통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의 대형 투자은행(IB)들은 리브라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나온다. 페이스북은 자회사 캘리브라를 통해 금융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안심하기 이르다.

게다가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하면 유출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비금이라는 바스켓 안에 여러 환이 들어가 있어서 환율 등락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며 "환율의 등락에 따라 리스크(위험)가 전이되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1인가구의 전기안전,
나 스스로 점검합시다!

전기적 참:경:시:점

혼자사는 나에게
참견해줄 매니저도 없으니까
내가 꽂은 전기코드
누가 대신 뽑아 주지도 않으니까
전기안전, 스스로 점검합시다

KEPCO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이재훈 | 경기지방서사점장부주임 | good_hoon

日 수출규제 철회에 총력전... '強大強 대결' 불사 의지

文대통령 강경발언 배경

靑 “일본에 대해 협의 촉구한 것”
민관 비상기구 언급 장기전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되 '강(強) 대 강(強) 장기전'도 대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정부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면 대결로 치달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주말까지만 해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한일 외교 협상 여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강경발언을 한 것은 일본이 협상을 거부하는 등 조기 협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진화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 이어서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업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노력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라며 “일본에는 협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양국 우호 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협의의 촉구와 조치 철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외교적 문제로 돌아갈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당부이자 촉구”라며 “양국 간 우호 관계가 더는 훼손되지 않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중 2차장. 연합뉴스

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대 강 대결도 불사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민관 비상기구 구성 검토 등을 언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표면상으로 수출 규제 품목이 일부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어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 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여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군사 목적 전용에 대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강제 노역 관련 부분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물리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해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협의 응할 수 없다” 日 첫 회신

정부, 유명희 통상본부장 다음주 美 파견... 국제공조 추진

한일 정부의 양자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낸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5일 우리 정부의 양자 협의 요구에 대한 답신을 보냈다. 1일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본의 첫 회신이다. 내용은 우리 측 기대에 못 미쳤다. “지금 으로서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 논의 시기도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답이 안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본이 협의 요구에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한일 관계는 대화 없는 ‘강(強) 대 강(強)’ 전선이 굳어질 공산이 크다.

양자 협의가 성사되더라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양국이 물러서지 않고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양자 협의를 수출 규제 정당성을 주장하는 ‘명분 쌓기용’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강화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만드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통상당국은 ‘우군 만들기’에 나섰다. 유명희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정치분쟁 해결 지렛대로 사용 말아야” 日야당, 對한국 수출규제 우려 목소리

아베 내각 지지율 소폭 하락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코앞(21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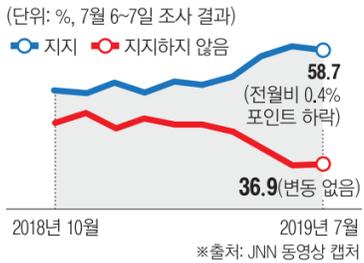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현지시간) 자민당 총수 자격으로 후지TV가 주최한 여야 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공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며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토론에 참석한 야당 대표들은 정부의 수출 규제에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수출 관리 관점에서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좀 더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설명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점점 (한일 양국의) 국민 감정 충돌이 심화한다”고 우려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총리의 설명을 잘 모르겠다”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또 패배할 일이 생긴다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이 가즈오 공산당 대표는 “정치적 분쟁 해결 지렛대로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 추이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강했지만 오히려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졌다. 일본 국민도 수출 규제에 따른 자국 경제 타격을 내심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TBS방송 계열사인 재팬뉴스네트웍(JNN)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수출 규제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응답률이 58%에 달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24%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8.7%로, 지난 달 조사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을 찾은 이유에 대해 수출 규제에 대한 향후 대응을 협의하려는 것이라며 현지 거래처들에 일본이 외 공장에서의 제품 수출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홍남기 “시장 변동성 커지면 ‘컨틴전시 플랜’ 가동”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제... 하반기 4가지 경제방향 밝혀
WTO협정 원칙과 글로벌 성장·교역 ‘확장균형’ 지향
‘수출시장 구조혁신’ 이달 발표... 디지털 통상 규범 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철저히 대응하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을 포함해 하반기 대외경제 정책을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고 동시에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수출 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출 및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7월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 대책도 시리즈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1조5000억 원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나가겠다”며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연내 타결 등 우리 경제 외연확장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규범 정립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명 이상 늘어

서비스업·여성·50세 이상 ↑
6월 구직급여 지급액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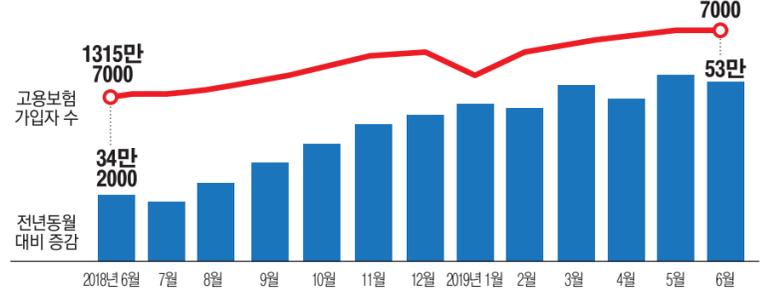
6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3만 명 증가해 4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계속 늘어나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6816억 원으로 증가세가 완화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6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만 명(4%) 증가했다. 6월 기준 2000년 6월(60만8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3월 52만6000명, 4월 51만9000명, 5월 53만3000명에 이어 6월에도 50만 명대를 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9월 40만 명, 올해 3월 50만 명대

고용보험 가입자수 (단위: 명)



를 돌파하는 등 매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7월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서비스, 여성,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50만9000명 늘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5000명 늘었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6816억 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액은 4월 사상 처음 7000억 원을 넘은 후 5월에는 7587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7000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4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11.8%)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100명(0.2%)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00명, 100명 감소하며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영천 7번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조성한다

국비 232억·73종 규제특례
교육·연구시설 등 배치

경북 영천이 7번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국비 232억 원과 73종 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영천에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영천시가 신청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수도권·제주 제외)을 선정할 때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구지정이 완

료된 것은 6개로 영천 지구가 7번째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관 합작으로 1893억 원(민간자본 1160억 원과 재정지원 733억 원)을 투자해 59만100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도시형 첨단산업·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지원시설을 배치해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영천지역은 60여 년간 탄약창, 3사관 등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지역이 낙후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을 유치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기재부, 이달 3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7월 중 총 3조 원의 재정증권을 2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63일물 또는 28일물)하는 유가증권이다. 단기 차입수단(재정증권 발행, 한은 일시차입) 중 하나로 연내 상환이 필요하다.

재정증권 발행은 이달 중 2회(17일, 24일 63일물) 동안증권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

문딜러(5개), 국고금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전액 7월 중 만기도래 예정인 재정증권 8조9000억 원(5~6월 발행)의 상환에 활용한다.

7월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 원 감소한 10조 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30조 원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국 주도 ‘남극 제2 펭귄마을’ 생긴다

두 번째 특별보호구역 지정 제안

한국의 남극과학기지 근처에 두 번째 남극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현지 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이 중국, 이탈리아와 함께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는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극조약 가입국인 54개국이 참여하는 연례회의다.

2009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32차 남극회의에서 세종기지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정부 지정제안 남극특별보호구역

펭귄마을 남극특별보호구역	
제안국	대한민국
지정 연도	2009년
지정 면적	0.98km ²
보호 대상	턱끈펭귄, 전투펭귄

인익스프레시블섬 남극특별보호구역	
제안국	대한민국·중국·이탈리아
지정 연도	2019년
지정 면적	3.31km ²
보호 대상	아델리펭귄, 인접해양

*출처: 환경부·극지연구소

어진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가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우

리나라 주도 아래 두 번째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나라 등 3개국이 제안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은 장보고기지 인접지역인 인익스프레시블섬 주변 약 3.3km²다.

정부 관계자는 “인익스프레시블섬은 남극회의에서 해양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으로 지정된 아델리펭귄 등의 번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지만 최근 관광과 연구 목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늘어나 보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등 3국이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섬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남극회의의 산하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전체 당사국의 지지를 받았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윤석열 “양정철과 2월에 만나… 정치 생각 없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양정철 민주연구위원장과 2월 만났으나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원장과 만난 시기에 대해 “올해 2월께인 것 같다”면서 “2015년 제가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 원장을)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면서 “2016년 제가 고검 검사로 있을 때 공직 사퇴 기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까지 몇 차례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고 전화가 와서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며 “제가 만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 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하튼 많이 유의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골프 쳤으나 사건 개입 안해”
한국당 “자료제출 부실” 질타
與 “황교안, 증인으로 불러야”

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2010년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 씨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있따라 각각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

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의 설전으로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질의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두고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 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정도는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선진화 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 당장 위원장부터 해당이 된다”며 “이 자리는 그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이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공세를 폈다.

김하늬 기자 honey@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문희상(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대응”...방일단 꾸리는 與野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합의 이달 중 日 방문, 해법 모색

여야는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방일단을 꾸리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의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은 18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초당적인 방일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이견 없이 이달 중 방일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일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 당 결의안을 준비하고 종합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오 원내대표도 “일본의 수출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 각당의 결

의안을 준비하고 회기 중에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경제 원탁 토론회, 삼척항 복원 목선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조만간 이견 조율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에 대해 “단지 징용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양국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훼손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다만 수출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했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윤 위원장은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일본의 조치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편도 운영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1588-3570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럽 최강’ 도이체뱅크의 몰락... 1만8000명 짐 싣는다

대대적 구조조정 시동

무리한 투자은행 확대 ‘부메랑’
2022년까지 인력 20% 감원
22兆 비용 감축... 수익성 개선
“자문·외환 중점 투자은행 축소”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글로벌 금융 위기 파고도 뛰어넘은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뱅크가 장기간의 실적 침체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대수술에 들어간다. 2차 대전 이후 독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불려온 도이체뱅크의 몰락이라고 불름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름버그에 따르면 도이체뱅크 감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조조정안은 대규모 인력 감축과 핵심 자산의 처분이 포함됐다.

통신에 따르면 도이체뱅크는 2022년까지 총 7만4000여명의 글로벌 인력 중 약 20%에 해당하는 1만8000명을 감원해 향후 몇 년간 190억 달러(약 22조3155억 원)의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은행 부문의 830억 달러 규모 자산을 분리해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도이체뱅크는 이러한 구조조정 비용으로 2022년까지 83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티안 세빙 도이체뱅크 최고경영자(CEO)는 구조조정 계획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도이체뱅크는 오늘부터 중대한 변화를 시작한다”며 “고객 거래를 중심으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은행 부문을 신설해 기업의 자금 결제 등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축소된 투자은행 부문은 기업에 대한 자문 업무 및 외환으로 중심을 옮긴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뱅크가 이처럼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데는 최근 들어 악화한 실적 탓이 크다. 도이체뱅크가 오는 25일 발표할 2019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31억 달러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이체뱅크의 침체는 이보다 훨씬 전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도이체뱅크는 ‘기적’이라고 불린 2차 대전 후 서독의 경제 성장을 금융면에서 지원했다. 독일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심으로 ‘유럽 최강’이라 불린 도이체뱅크

가 투자은행 부문에 치우치기 시작한 건 1998년 미국 뱅커스트리트 인수가 계기였다. 독일 기업이 한계점에 이른 가운데 해외에 진출하는 독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해외로 진출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도이체뱅크는 세계 최고 은행을 목표로 투자은행 부문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무리수를 뒀다. 한때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지만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한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블름버그는 지적했다.

여기다 각종 스캔들이 시달리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악재가 이어진 것도 치명타였다. 2017년 1월엔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온 부실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판매 관련, 미국 법무부와 72억 달러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러시아 돈세탁 관련해 6억3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거래 은행으로서 지난 3월에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은 도이체뱅크가 미 하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도이체뱅크는 지난 4월 업계 2위 코메르츠뱅크와 인수 합병을 논의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합병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협의를 중단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유럽, 이란産 원유 수입·금융거래 재개하라”

이란, 핵합의 벼랑끝 전술
“60일내 해결책 찾지 못하면 중수로 현대화 중단” 압박
트럼프 “조심하게 좋을 것”



을 열고 “앞으로 60일 이내에 유럽이 해법을 찾지 않으면 핵합의 이행 범위를 또한 번 줄이겠다”며 “우리가 제시하는 첫째 조건은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마감시한인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우라늄 농축도가 상한선인 3.67%를 넘길 것이며 “새 농축 비율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새 부품과 설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수로 현대화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영국을 압박했다. 이어 또다시 60일의 시한을 제시하고 유럽이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 축소 2단계 조치로 우라늄 농축 제한(3.67%)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더니 이번엔 유럽연합(EU)을 압박하며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

이란은 7일(현지시간) 앞으로 60일 이내에 해법을 찾지 않으면 3단계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고 블름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일방적 핵합의 탈퇴와 대 이란 제재, 유럽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은 이란이 핵합의 탈퇴 수순을 밟아가면서 핵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블름버그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라키(사진) 이란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

이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 만인 지난 5월 8일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축소 의무 가운데 일부 이행을 중단하는 1단계 조치를 했다. 2031년이 기한인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보유 한도(각각 300kg, 120t)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이란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핵합의 당사국에 60일의 마감시한을 제시하며 “유럽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우라늄 농축도를 올리는 것은 물론 아라키 중수로 현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조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온적으로 반응하자 알리 라비에이

다급해진 유럽은 이란 핵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란에 우라늄 농축 제한 합의 파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조심하게 좋을 것”이라고 이란에 경고장을 날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이란의 최근 핵 프로그램 확대는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란의 벼랑 끝 전술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그리스 총선, 중도우파 신민주당 완승
7일(현지시간) 실시된 그리스 총선에서 4년 6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한 중도우파 신민주당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대표가 아테네 당사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승리의 연설을 하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현 집권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8년에 걸친 구제금융 졸업을 이끌고도 긴축 정책에 지친 유권자들을 잡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7일(현지시간) 실시된 그리스 총선에서 4년 6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한 중도우파 신민주당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대표가 아테네 당사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승리의 연설을 하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현 집권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8년에 걸친 구제금융 졸업을 이끌고도 긴축 정책에 지친 유권자들을 잡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이테네/로이터연합뉴스

에어버스에 항공기 50대 계약 빼앗긴 ‘보잉’

‘737맥스’ 여객기 추락사고 여파로 고전하고 있는 미국 보잉이 라이벌인 유럽 에어버스에 자사 최대 고객 하나를 빼앗기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어딜(Flyadeal)’이 7일(현지시간) 최대 50대의 보잉 737맥스 여객기 주문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에 에어버스 ‘A320네오’ 구매를 5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잉은 지난해 10월 말과 올해 3월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맥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고객의 신뢰가 추락한 것은 물론 3월 에티오피아 사고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737맥스의 운항과 인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플라이어딜은 이날 성명에서 보잉이나 추락사고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어버스 A320네오 주문을 50대까지 늘려 항공

기 편대 규모를 크게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이어딜은 “6월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모회사인 사우디아항공코퍼레이션과 에어버스 간에 해당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번 주문으로 자사의 미래 전체 여객기가 모두 A320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플라이어딜은 지난해 12월 보잉으로부터 737맥스 여객기를 30~50대까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계약 규모는 정가 기준으로 최대 59억 달러(약 6조 9400억 원)에 달했다.

보잉은 지난달 파리 에어쇼에서 영국 브리티시항공의 모회사인 IAG로부터 200대에 달하는 737맥스 주문을 받아 모처럼 전 세계 항공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수개월 만에 처음 받은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우디 플라이어딜의 이탈로 신뢰 회복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투자자 절반 “12개월 내 경기침체 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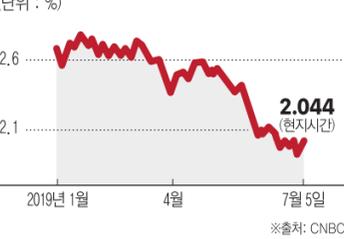
ASR, 200여 기관 대상 설문조사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있다. 애플루트스트라티지리서치(ASR)가 전 세계 메이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 한 결과, 향후 12개월 안에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45%로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ASR는 200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총 4조 달러(약 4719조 원)에 달한다. 이들 펀드 매니저들이 리세션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은 그만큼 올해 펼쳐진 채권시장 랠리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FT는 풀이했다.

투자자들은 1년 후 미국 단기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3월 조사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미국 장기국채 금리와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는 유럽 국채 금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거의 사라졌다고 FT는 전했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만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채에 대한 투자 열기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주된 의문은 투자자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경제를 보고 있는지 여부다. 미국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

은 22만4000명 증가로, 7만2000명 늘어난 전월에서 크게 개선된 것은 물론 시장 전망인 16만5000명 증가도 훌쩍 뛰어넘었다.

고용지표 호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50%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결과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5일 전 거래일 대비 10bp(bp=0.01%포인트) 오른 2.044%로, 2%선을 넘었다. 그럼에도 시장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고용시장이 견실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금리인하 전망을 사라지게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연준이 지난달 금리인하 이유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언급했을 때 고용시장 건전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환경분야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모집기간_ 2019.6.19 ~ 7.12



주유소에 대한 관점을 뒤집으면?
생활의 스마트 네트워크, SK주유소



생각한다 i 더극소삼



자동차 소재에 대한 상식을 뒤집으면?
미래자동차 산업을 바꿀 초경량 소재



<메리츠화재 텔레마케팅>

메리츠TM, 3년새 7배 '급성장'... 부실계약 우려

메리츠화재 TM(텔레마케팅) 채널이 급성장하고 있다. 장기 인(人)보험만 따져봤을 땐 생명보험사를 넘보는 수준이다. 그러나 무리한 영업 확장에 따른 부실계약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TM 채널에서 올해 1분기 장기인보험 실적은 초회보험료 기준 45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45억 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는 3년 전인 2017년(6억 3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는 7배 가량 높아진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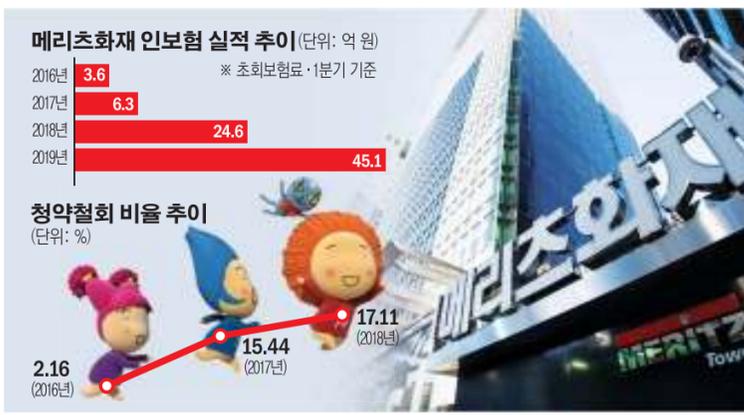
특히 올 3월에는 18억 원을 기록해 TM 인보험에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생보업계 TM 강자인 라이나생명과도 견줄만한 수치다. 손보업계에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보사들의 1년 치 실적이 통상 2억 원을 맴도는 것과 비교하

대면채널 이어 인보험 공략 집중 1분기, 작년 한해 실적 45억 돌파

청약철회 비율 17% '업계 최대' 비대면 특성상 불안전판매 우려 정부, 채널 규제 강화 위험 요소로 업계 "무리하게 실적 경쟁 혈안"

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면 채널에 이어 TM 채널에서도 인보험을 공략해 수익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TM보단 CM(인터넷)에 집중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메리츠화재는 내부적으로 생보사를 목표로 세우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늘어난 실적만큼 TM 채널 청약철회 비율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메리츠화재 TM의 청약철회 비율은 17.11%로 주요 손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6년 2.16%, 2017년

15.44%로 지속해서 높아지는 양상이다. 공격적인 매출 확대 전략의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TM 채널 규제 강화도 위험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TM 채널의 불안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TM 채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모집(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계약 건 중 녹음내용을 점검하는 규모도 대폭 늘리고 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TM 채널 특성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TM 채널에서 인수완화에 따른 보험사기 우려로 차아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급성장에는 반드시 파열음이 따른다"며 "영업조직 규모가 대형사 못지않은 메리츠의 경우 관리를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실적경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적당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환경개선 실천하고 금융혜택 받으세요”

기업銀 'IBK늘푸른하늘통장·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은 미세먼지 감축 활동과 연계해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IBK늘푸른하늘통장'과 'IBK늘푸른하늘대출'을 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을 실천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관련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IBK늘푸른하늘통장'은 적립식·거치식·입출금식 상품으로 구성된다. 적립식과 거치식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 모두, 입출금식은 개인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개인고객 대상 적립식의 경우 환경개선 '다짐' 연 0.4%포인트, 환경개선 '실천' 연 0.4%포인트 등 최고 연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거치식은 환경개선 '실천' 우대금리 연 0.25%포인트를 제공한다. 입출금식 통장은 IBK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 조



건을 충족하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월 50회), 타행 ATM출금 수수료(월 10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IBK늘푸른하늘대출'은 '혁신성장 영위 기업' 중 신재생에너지·친환경발전·에너지 효율향상·환경개선·환경보호 중소기업에 특화된 상품으로, 대상 기업에 연 1.0%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총 지원규모 500억 원으로, 한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객진산 기자 jinsan@

'제3인터넷銀 주인공 찾기' 재시동

이달 말 예비인가 일정표 공고 10월 접수·12월 결과 발표 토스·키움 재도전 여부 촉각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이달 말 다시 시작된다. 관전 포인트는 고배를 마신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다.

8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고,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표는 이달 말 공고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3분기 신청을 받은 뒤 4분기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접수 마감 한 달 미뒀다. 새로운 '돈 줄'을

찾아야 하는 토스뱅크(가칭)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1차 도전에서 토스뱅크는 해외 벤처캐피탈(VC)을 중심으로 주주를 구성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자본금 2500억 원으로 출범한 뒤 3년간 1조 2500억 원 까지 증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배구조가 불안하다"며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평위를 만족할만한 수준의 SI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스뱅크가 초기 자본금 규모를 줄여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250억 원이다. 말 그대로 '작게 날아 크게 키운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대출 비즈니스에 제약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재도전 여부는 결정짓지 않았다"며 "일정이 공고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뱅크의 예비인가 불허 원인으로 지목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문제는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키움과 토스 측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재도전) 의사가 있다면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며 "두 회사가 매우 주의 깊게 설명을 듣고 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www.douzone.com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iCUBE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와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반도체 수직 계열화한 SK '연쇄 타격' 위기감 고조

SK실트론, 웨이퍼 제조 빨간불
SK머티리얼즈도 간접 영향권
완제품까지 생산 차질 가능성
"소재 국산화 움직임 가속"

SK그룹 반도체 사업 현황

SK하이닉스	반도체
SKC	반도체 소재
SK머티리얼즈	반도체용 특수가스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SK그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수출 규제에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스와 웨이퍼 등을 생산하는 그룹사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SK그룹은 2011년 SK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 2016년 SK머티리얼즈, 2017년 SK실트론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시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머티리얼즈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PR),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회사인 SK머티리얼즈는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LCD 및 태양전지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

질이 묻어 있는 장비를 세척하는 삼불화질소(NF3) 등을 생산한다.

SK머티리얼즈는 당장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연쇄적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사실상(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거론하고 있는 품목과는 관련이 없고 자회사 SK소와덴코에서 에칭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규제하는 제품과는 다르다"며 "원료 역시(규제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중국에서 대부분 들여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며 피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아직(생산차질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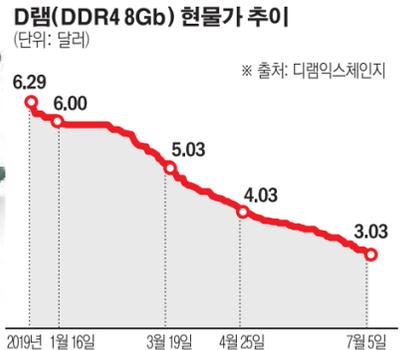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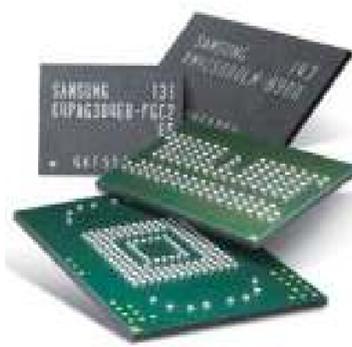
웨이퍼 전문회사인 SK실트론은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가스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재고가 있어 기존과 같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재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수출 규제 상황에 진전이 없거나 대체품을 찾지 못하면 생산이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순차적으로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SK실트론 관계자는 "에칭가스를 원료로 쓰는 부분에 대해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한 달에서 한 달 반 후에 재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물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일본 외에 중국과 미국에서(대체재료를) 알아보고 있으나 제품이 똑같이 표준이 돼있는 것이 아니라서 적합한 원재료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수출 규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시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관련 SK그룹사들은 단기간으로 생산에 동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증설 등 외형적인 성장은 물론 기술력 역시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에 따라 일본 업체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졌다"며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벤더 다변화를 통한 소재 국산화를 하려는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재팬쇼크·D램값 하락 '설상가상' 전례 없는 반도체 불확실성 직면

감산으로 가격 롤리코스터 예상
중 업체에 추격 발판 내줄 수도

올해 상반기 반도체 가격이 연초 대비 반토막났다. 반도체 수요·공급 불균형,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하반기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8일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7월 현재 D램(DDR4 8Gb) 현물가는 3.03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3달러 저지선도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D램 현물가격은 7달러대였다. D램 현물가는 작년 1월 최고가 9.6달러에서 7월 8달러 아래로 떨어진 후 현재까지 급락하고 있다.

현물가격은 도·소매상이 수요업체들에 소량의 반도체를 팔 때 책정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D램과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의 약 80%는 고정거래가로, 나머지 20%가량은 현물거래로 거래된다. 현물거래는 소량으로 거래되며, 고정거래 가격보다 재고·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를 빨리 반영한다. 수급불균형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 등이 가격 하락의 주된 배경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돌발변수로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그동안 미·중 무역분쟁과 서버 업체들의 투자 지연 등은 모두 반도체

수요를 위축시키는 행위였다. 반면에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생산이라는 공급에 타격을 입히는 새로운 차원의 악재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공급 업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감산 전략을 펼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가격 상승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내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국내 반도체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국 등 경쟁국가에 추격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도체 가격이 너무 내려가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또한 경영 측면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불안정한 가격 변동은 오히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감산 전략도 미세공정도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구사할 수 있는 작전이다. 반도체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공급사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세계 3대 '몬트리올 불꽃축제' 한국 대표 한화 뮤지컬쇼 호평

썬한화는 지난 4일 제35회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불꽃축제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몬트리올 국제불꽃축제는 3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국제불꽃경연대회로 일본 오마가리 불꽃축제, 호주 하버브릿지 불꽃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불꽃 축제로 꼽힌다. 올해는 한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이 7월 말까지 각 나라의 특성을 살린 상징적인 불꽃 쇼를 선보인다.

썬한화는 이번 대회에 '몬트리올에서 꿈꾸다(Dreaming in Montreal)' 라는 주제로 참가해 환상적인 불꽃 쇼를 선보였다. 약 20년간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이어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약 30분간 음악과 어우러지는 뮤지컬 불꽃 쇼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변호선 기자 hsbun@



삼성중,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기록 다시 썼다

2만3000TEU급...길이만 400m
스위스 MSC에 6척 중 1척 인도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건조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하며 2만TEU급 '메가 컨테이너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9월 스위스 해운 선사인 MSC로부터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선박 건조를 계약일보다 3주가량 일찍 완성해 6일 성공적으로 출항했다고 8일 밝혔다.

'MSC GULSUN'(굴슨)으로 명명된 이 선박은 길이 400m, 폭 61.5m, 높이



33.2m로 20ft(피트) 컨테이너 2만3756개를 한 번에 실어나를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큰 선박이다.

또한 이 선박은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십 시스템 '에스베셀(SVESSEL)'이 탑재돼 안전하고 경제적

인 운항이 가능하다.

환경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크러버(Scrubber) 설치하는 물론 향후 LNG 연료 추진선박으로도 쉽게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LNG-ready)한 친환경 스마트 선박이다.

삼성중공업은 1990년대부터 컨테이너선 대형화를 선도해 왔다. 5000TEU가 주종을 이루던 1990년에 세계 최초로 6200TEU급을 개발했다. 이후 2004년에는 1만2000TEU급 컨테이너선 개발에 성공했고 2015년에는 일본 MOL로부터 2만1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하며 세계 최초로 2만TEU급 컨테이너선 시대를 열기도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현대차 상여금 월별 지급 추진 노조 "총파업으로 대응"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 측의 취업규칙 변경에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측은 현재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600%)으로 인해 연봉 9000만원을 받는 직원조차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산정되자 상여금을 쪼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노조는 이에 맞서 "다른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기본급의 600%)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처럼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을 단행했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져 현대차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된 상황이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소니, 제품 불매운동 우려 무선이어폰 출시 행사 취소

소니코리아가 11일 진행할 예정이던 무선 이어폰 출시 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불매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소니코리아는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WF-1000XM3 출시 행사를 내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니코리아 측은 "행사 연기가 아닌 취소"라며 "행사 사흘 앞둔 상황에서 취소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애초 소니코리아는 11일 무선 이어폰 출시와 함께 2019년 오디오 사업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반일감정이 높아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자 '역효과'를 우려해 제품 출시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본 브랜드의 상징인 '소니'가 서울 한복판에서 성대한 행사를 열 경우 미칠 파장을 고려한 취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최정우 '친환경 경영' 속도 낸다

**포스코 1000억 자금 조달
미세먼지 저감 설비 투자 확대
3년간 연 3500억 투입 방침
취임 1년 '기업시민' 활동 강화**



SCR이란 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 질소와 산소 등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전환하는 설비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SOx)은 미세먼지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SCR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약 65~85%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친환경 설비 개선에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내세운 최정우(사진) 회장의 '친환경 경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5일 3000억 원 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는 발행자금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발행자금 중 2000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을 '포항 소결공장 배가스 청정설비 효율 개선'에 사용한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SCR(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비 투자는 포스코의 친환경 정책 중 하나로 풀이된다. 올해 초 포스코는 2021년까지 친환경설비 구축에 1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는 당시 이자금을 △노후한 부생가스 설비폐쇄 및 최신기술 적용한 발전설비 제작 △철강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공공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저감 △SCR 설비 추가설치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는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3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포스코는 매년 설비 투자 예산의 약 10%를 환경개선 분야에 투자해 왔다. 이 회사의 연평균 설비투자 규모는 1조5000억~2조 원 수준으로 연평균 1500억~2000억 원이 설비 투자에 투입됐다. 포스코는 투자금액을 늘려 향후 3년간 연평균 3500억 원을 환경개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투자 증대에는 최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최 회장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뜻하는 '위드 포스코(With Posco)'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줄곧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제철소 환경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달 사내에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만들기'를 위한 대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며 제철소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기개선 TF는 30여 명으로 구성돼 2021년 12월까지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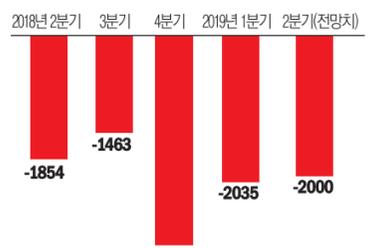
안경무 기자 noglasses@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
영업이익 추이**
(단위: 조 원)



* 출처: 삼성전자

**LG전자 MC(스마트폰) 사업본부
영업이익 추이**
(단위: 억 원)



* 출처: LG전자

삼성·LG "남는 게 없네" 고사양 중저가폰 딜레마

**중국 업체 꺾으려 '교육지책'
고가 부품, 마진 감소 우려**



삼성 갤럭시 A80

LG 스타일로5

삼성전자, LG전자가 고사양 중저가폰 출시 전략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중저가폰을 선보일 계획이지만, 원가 부담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속제로 남겨져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프리미엄 기능을 도입한 중저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유럽, 중동 등을 중심으로 갤럭시A80을 출시했다. 갤럭시A80은 삼성 스마트폰 최초로 회전 카메라를 적용했다. 인도에는 갤럭시 A 시리즈 제품명에 's'를 붙인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또한 해외 시장에 중저가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북미 시장에 출시한 LG 스타일로5는 삼성의 갤럭시노트처럼 스타일러스 펜이 도입됐다. 가격은 229.99달러(약 26만 원)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더 나아가 5G(5세대 이동통신)를 지원하는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권봉석 LG전자MC(스마트폰)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 2월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5G 보급 확산 속도에 따라 하반기 보급형 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가 중저가 스마트폰에 공을 들이는 것은 중국 업체의 무서운 성장세와 연관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화웨이(17%)는 2위를 기록하며, 선두인 삼성전자(21%)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또 다른 중국 업체인 샤오미(8%)와 오포(7%)가 각각 4, 5위를 차지하며 선전하고 있다. 삼성, LG는 중국의 성장세를 꺾기 위해 저렴한 스마트폰을 통해 점유율을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고사양 중저가폰이 실적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프리미엄 기능을 구현케 하는 고가 부품의 적용은 제조 비용을 증가케 하고, 이는 마진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삼성, LG는 플래그십 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아마저도 쉽지 않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00달러(약 47만 원) 이상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폰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폰과 비교해봤을 때 마진율이 낮다"며 "하지만 중저가 스마트폰은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는 해당 시장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전경련 22일 한중일 기업가 포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22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과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9 한중일 기업가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중일 3국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과 혁신산업 기업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중일의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유수한 젊은 창업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승차 공유서비스 스타트업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한 개인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M의 이지혜 대표가 발표를 맡는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혁신 저널리즘 대표 기업인 쿼츠(QUARTZ)를 인수해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경제미디어 기업 유자베이스(UZABASE)의 이나가키 유스케 대표가, 중국에서는 스마트 제조업 이인 국제협력 총책임자가 참여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희망자는 전경련이나 한중일3국협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SK이노, 환경분야 창업 공모전

SK이노베이션이 환경부와 손잡고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8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요건, SK이노베이션의 지원 범위, 공모전의 취지 등을 상세하게 문의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접수 건이 늘어나는 공모전의 특성상 앞으로 더욱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를 평가해 선발된 총 5개 팀에게는 각각 100만~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일회성 상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선발한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선발된 5개 팀 중 3개 팀을 골라 각각 1억~3억 원까지의 초기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SK이노베이션이 갖추고 있는 법률, 마케팅, 재무, 홍보 등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변효선 기자 hsyun@

신제품

치과 전문가 인정, 추천!

완전히 새로워진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세정기 AQ-230

편리한 휴대성

휴대 가능한 최적인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구강관리 가능합니다.

분당 1,400회 맥동수류

초경량 바디에서 흘러져 나오는 분당 1,400회 맥동수류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더욱 커진 용량

200ml로 더욱 커진 용량 (기존 자사 용량: 150ml)

프리볼트 (Free Voltage)

프리볼트 (Free Voltage) 전용으로 전체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접점 충전방식

충전부위에 물기가 닿아도 안전한 무접점 충전방식과 IPX 7의 방수 등급

제품명: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세정기
모델명: AQ-230
구강 세정 방식: 초음파, 초진동, 세팅 2개
전압: 100~240V / 50~60Hz
소비전력: 0.7~1.7W
제품크기: 160x65x275 (mm)
제품무게: 28g
용량: 200ml
방수등급: IPX7 / 분
3가지 모드: Clean, Soft, Massage

치솔질 후에도 남아있는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쿠아픽 무선 구강세정기로 싹~

구강관리, 치솔질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세정기(AQ-230)는 강력한 맥동수류로 치아와 잇몸 사이 숨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주어 치아와 잇몸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구강관리 필수 제품입니다.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 치솔질만으로 구강관리가 불안하신 분 • 교정치로 중이신 분 • 임플란트 중이신 분 • 보철물 장착 환자 • 잇몸이 약하신 분 • 임신부나 어린이 • 외부활동이 많으신 분 • 구취가 고민이신 분

음식물찌꺼기 제거
잇몸마사지 효과

교정치아의
효율적인 치아관리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

안정감과 안전성을 더한
새로워진 디자인

Clean / Soft / Massage
3가지 세정 모드

아람비스터 단독 특가 **42,666원 X3개월 무이자 할부**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홍신비엔터테인먼트 | 세. 2014-서울송파구-0909

주문전화 **080-388-7000**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에서 바꾸면 출발부터 즐겁다”



전세계 어디를 가든 환전은 역시 KB

Let's KB 환전 페스티벌



EVENT 1. 월드클래스급 최대 90% 환율우대

Liv(리브)로 환전 시 최대 90% 환율우대
USD 90% / JPY·EUR 80% / 기프트콘 및 모바일 지급 포함
KB네트워크환전, KB서울역환전센터, 외화 ATM(USD), 멀티 외화 ATM 이용 시 최대 80% 환율 우대



EVENT 2. 전국 무료 외화 배달 서비스

KB-POST 외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신청금액 상관없이 배달 수수료 면제
이벤트 기간: 2019. 6. 1(토) ~ 8. 31(토) / 배달 가능 지역: 전국(일부 도서산간지역 제외)



EVENT 3. 제휴할인 및 적립금 혜택

씨타·두타·SM면세점 및 MK감자유학
마이리얼트립·포켓와이파이에서 할인 및 적립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존 참조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1046-1호 (2019.06.28) 광고물 유효기한 2019.08.31까지

행복한 성장 위해 '따뜻한 자본주의' 를 시작합니다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이윤 제일주의 시대의 종말

재계 전반에 '사회책임경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만 좇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자본주의 사회의 '절대선(善)'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 세상은 매출과 이익 숫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단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인 양극화, 환경오염, 기회의 불평등, 물질만능주의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기업을 넘어 국가의 존립도 담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불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책임경영 바람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혁신 △교육 △사회 캠페인 △공정 △사회공헌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매주 1회씩 12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혁신'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 개발로 환경과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조명한다. '교육' 부문에선 소외 계층 교육 격차를 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할 계획이다. '사회 캠페인'은 에스티로더의 핑크리본 캠페인, CJ대한통운의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 시민의 의식 변화를 이끈 다양한 캠페인을 조명한다. 또 '공정' 부문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의 노력을 소개하고, '사회공헌' 부문에선 'LG의인상'을 비롯해 지역과 국가, 국민을 위해 보람된 활동에 나서는 기업 활동을 조명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지출 29% 늘어
2017년 기업 1곳당 138억
한번 잃은 신뢰 회복 어려워
산재·환경오염 등 적극 대처

청소년 교육에 힘쓰는 삼성
사회적 가치 계량 나선 SK 등
혁신·교육...5개 부문 나눠
매주 1회씩 총 12회 연재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는 따뜻한 자본주의,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미덕인 매출과 이익 극대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이익의 환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와 기업 구성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는 '파괴적 변형'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기본은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흔적'을 지우는 일이다.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시민의 희생에 보상을 줘야 한다.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 명성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받는 것은 물론, 고객과 시장 등 사업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의 석유 개발 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던 글로벌 석유 기업 쉘, 파키스탄의 열두 살짜리 어린이를 노동자로 고용한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축구공을 판매한 나이키,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고 의무를 생산한 갑 등은 시장과 고객으로부터의 호된 저항을 경험했다. 국내

를 봐도 가슴이 살균제 피해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인종 조작,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등은 기업의 사회 책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재계 관계자는 "신뢰를 올리기도 어렵지만, 한 번 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에 힘을 쏟는 이유"라고 말했다.

재계 전반에 사회책임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도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2018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업 1곳당 평균 사회공헌 관련 지출 규모는 137억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8.7%나 성장한 규모다.

평균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2013년부터 4년간 '역성장'하다 2017년에 들어 급증했다. 재계 전반에 사회 책임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을 방증하는 숫자다.

사회책임경영은 결국 기업의 지속경영에도 큰 도움을 준다.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호감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또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최근 들어 사회책임경영에 큰 노력을 쏟고 있는 SK그룹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정밀하면서도 효율적인 사회공헌의 토대를 다지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경제적 가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며 "사회적 가치 창출은 영리 기업의 존재 이유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 설립자인 고(故) 최중현 회장은 설립당시에도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 문제에 얼마나 자원을 써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 임직원들과 토론을 즐겼다.

올해 삼성전자는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창립 81주년을 맞은 삼성 역사상 첫 사회공헌 비전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여서 그런지 젊은이들의 고민이 새롭게 다가온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이란 타이틀을 앞세워 사회책임경영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에 대해 '기업 교육 활동을 넘어 사회적 이슈 해결에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포스코의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송영록 기자 syr@

“고용하기 위해 생산한다”...美·유럽, 수십년 전부터 ‘사회책임경영’ 실천

해외 사례 살펴보니

현금 기부 넘어 고유 기술 활용
IBM, 美 교육 문제 해결 나서
獨 화이자, 지역민 학습터 자처



행복해 보이는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의 직원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실업자, 노숙자는 물론 심지어 전과자, 약물 중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며, 실제 이들을 대거 채용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 홈페이지 캡처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6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IBM에 방문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 CEO(최고경영자)들이 모인 교육 회담에 대통령까지 참석한 것이다. IBM의 수장이었던 루 거스트너가 “하루만 시간 내서, 골치덩어리인 교육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IBM과 논의합시다”라고 한마디했을 뿐이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교육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기업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적극 나서 주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웠을 것이다.

회담 이후, IBM은 ‘교육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미취학 아동·교사·학부모를

연결 짓는 소프트웨어와 학생 멘토링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 학교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이는 정부와의 비즈니스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IBM은 기술적 재능을 활용해 교육 혁신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업이 비즈니스와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

을 하는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 단순히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닌 기업 고유의 지식, 특성,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보다 수십 년 앞서 이를 실천에 옮긴 곳은 유럽이다. “기업은 사회·경제·환경 분야 모두에 책임을 지고 성과를 파악

해야 한다”는 TBL(Triple Bottom Line) 정의도 이 분야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 영국의 존 엘링턴이 만들어 낸 개념이다.

실제 유럽 기업들은 기업행동을 규제하고 시민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경영의 전형이라고 평가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일례로 주민의 놀이터이자 학습터로 과학체험관과 체육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독일 제약회사 화이저는 바이에른주 주민이 가장 아끼는 회사로 유명하다. 화이저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에도 주민들은 화이저 주식을 적극 매수해 대주주가 됐고, 결과적으로 화이저는 자리를 지켰다.

이 같은 유럽 스타일은 자유시장 행동을 중시하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2001년 미국 경제에 충격을 안겨준 비도덕적인 엔론(Enron) 사태 이후,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그 과정에서 재조명된 기업 중 하나가 1982년 설립된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다. 이 회사는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브라우니를 만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브라우니를 만든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실업자, 노숙자는 물론 심지어 전과자, 약물 중독자들을 대거 채용했다. 연령대도 65세 이상이 상당수였다. 실제 창업자 글렌스맨은 이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며, 마약 등을 끊는 직원에게는 무료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국뿐 아니라 인도 뭍바이 호텔 ‘오کید’ 역시 대표적 사회적책임경영 사례로 종종 거론된다. 업계 최초로 환경지속가능성 면에서 ‘ISO 14001’ 인증을 받았으며 투숙객들은 도시 환경 캠페인이나 정화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웰릭스 식물처리제 ‘판매 금지’… 법원 12일 최종 결정

2017년 분쇄기-여과기 일체형으로 인증받았지만
 시판물 조사 결과 소비자가 분리 가능한 구조로 확인
 웰릭스 측 각 행정소송… 서울법원 12일까지 보류 판정
 판정 뒤집히지 않을 땐 13일부터 판매·사용 전면 금지

웰릭스켄탈의 식물처리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웰릭스는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고, 서울행정법원은 12일까지 판매 사용 ‘보류’ 판정을 냈다. 보류 판정이 뒤집히지 않을 시 13일부터 웰릭스의 식물처리기는 판매가 금지되고, 기존 사용자들의 사용도 금지된다.

8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대경트라이움 제조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이달 1일자로 판매 금지 대상 제품에 올랐다. 대경트라이움은 웰릭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하고 있다. 웰릭스가 판매하는 식물처리기는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을

같이서 미생물로 처리하는 제품이다. 지난달에는 ‘2019 고객만족브랜드대상’ 인증식에서 식물처리기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2년 10월부터 가정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 제품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대경트라이움(모델명: DK-F1601)은 2017년 3월 16일자로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상시적인 제품 시험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판매 사용 금지 목록에 오른다. 이달 1일 기준 판매 금지 제품은 총 113개다. 지난해 7월 기준 104개에서 9개 모델

웰릭스 식물처리제

제조사	대경트라이움
모델명	DK-F1601
인증 획득	2017년 3월 16일
인증 취소	2019년 7월 1일 (현재 행정소송으로 '보류' 상태)
취소 사유	인증받을 때는 일체형이었으나 시판물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제품 발견

가정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도

환경부 산하 한국상하수도협회, 2012년 10월부터 가정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도 시행. 인증받은 제품만 판매·사용 가능. 인증 안 된 제품이나 인증 취소된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추가된 것이다. 대경트라이움이 제조한 웰릭스의 식물처리기는 2017년 일체형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준 중 1차 분쇄기와 2차 여과기가 일체형으로 소비자가 분리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판물 조사 결과 2차 여과기가 일체형이 아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상

하수도협회는 해당 제품을 인증 취소 목록에 올렸다. 웰릭스는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2일까지 판매 사용 금지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 12일까지는 판매 금지 목록에서 제외돼 현재는 판매와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그때까지 중대한 사유가 없을 시 13일부터 해당 제품은 다시 금지 목

록에 오른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는 “이제까지 행정소송을 해서 판매 사용 금지에 오른 제품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바뀐 사례는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한 것 자체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금지 목록에 오른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사는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사용자 역시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웰릭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을 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시불로 구매를 했거나 렌탈 구매를 한 소비자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웰릭스의 식물처리기는 렌탈 비중이 90%이며 일시불 판매는 10%에 불과하다. 웰릭스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판매 금지 목록에 오를 경우에는 렌탈 보상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표

이더리움·이오스와 본격 경쟁… LG전자·넷마블 등 23개 기업 네트워크 참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그라운드X(그라운드엑스)가 개발한 플랫폼 ‘클레이튼’으로 출시표를 던진다. 그라운드X는 서비스 공개와 시연을 통해 플랫폼 사용성 확장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9일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 론칭 이벤트를 통해 서비스 소개와 실사용 사례를 공개한다. 클레이튼은 현재 그라운드X 대표가 주도로 개발된 서비스형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클레이튼은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돼 범용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eum)에 비해 탈중앙성을 높이고 디앱에 필요한 실용성을 강화하는 빠른 블록체인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튼은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의한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범

용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성능을 내는 게 목표다.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 기업은 카카오, 그라운드X, LG전자, 넷마블, 위메이드 등 23개 기업이다.

서비스 출시를 눈앞에 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속도와 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더리움과 이오스(EOS)를 채택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클레이튼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이더리움 기반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느린 속도와 네트워크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예상되고, 이오스에선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보험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 인수어리움(직토)과 물류 블록체인 개발 프로젝트 템코 등이 클레이튼을 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튼이 대기업 네트워크 참여자와 신생 프로젝트의 앱(DApp·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개발을 발판으로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참여 기업이 국내 기업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만큼 ‘한국형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한국형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선 다른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국내 서비스에서 해외로 확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클레이튼은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서비스 개발 파트너들도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더리움과 이오스 등 다른 플랫폼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박영선 “AI 데이터센터 세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산업 국가기반 마련하겠다”

3대 신산업 전담조직 구성

“제조혁신이라고 할 만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뒷받침 돼야 한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것이 중소기업부 앞으로 할 일이다.”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AI,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팀장급 직원을 내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AI와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중기부가 새로운 로드맵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로드맵이 AI를 기반으로, AI를 접목한 미래공장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1기 중기부가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데 주력했다면 2기 중기부는 신산업 국가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이런 신산업이 클라우드에 플러스되거나 AI와 접목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가에 비해 그간 한국어 AI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산업 투자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AI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데이터 주권’이라고 칭했다.

박 장관은 “AI가 사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이 기반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10년동안 너무 국가가 투자를 게을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중기부의 향후 과제에 대해 박 장관은 “특히 중기 같은 경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분석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충이 된다”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중기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경제보복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가정에 따라 여러가지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100대 수출품목 등 (상황과 타격 등을)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산자부를 비롯해 정부부처 내 공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조 등을 통해 좀 더 튼튼하게 연대를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여성 운영 中企 경영 안정 위해 5000억 특별보증

예비·초기·도약기 등 단계별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
 전용 벤처펀드 300억 추가 조성… 여성가장 창업 50억 지원

여성들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판로 지원 등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자 5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중소기업정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와 초기, 도약기 등 단계별로 여성 기업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여성 전용 벤처펀드 3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취약 계층인 여성 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자금 50억 원도 별도 편성된다.

또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고자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 원 규모 여성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1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여성 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로 확보한다. 여성기업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제품의 공공구매 목표액을 9조2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7000억 원 증액한다. 여성 기업 제품의 TV 홈쇼핑 특별방송도 월 1회에서 2

~3회로 늘리기도 했다. 또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 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여성 평가위원도 올해 전 부처·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통합 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SIMS 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선 이 시스템을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앞으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으로 추후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 등을 중기부와 사전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중기부, 제로페이 상생프랜차이즈 37개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37개 프랜차이즈와 ‘자상한 프렌즈’ (자발적 상생에 함께한 프랜차이즈) 지정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모바일 직불결제인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향후 37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의 제로페이 사용을 지원하고 기존 결제 시스템

(POS)과 제로페이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간결계추진사업단은 제로페이 상생프랜차이즈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부터는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에 해당 프랜차이즈가 지원할 경우 평가 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직격탄 맞은 日맥주... 동네 소비자들 손길 끊었다

가보니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 확산 현장

지역상권 중심 분위기 싸늘... 일부 편의점선 주말 판매 '0'
JTI코리아 신제품 기자간담회 연기 등 대기업들 '눈치보기'
유니클로·무인양품 등 중심가 출점업체는 체감지수 낮아

#1. "제가 바로 일본 불매운동의 산증인이예요." 8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화장품 코너에서 만난 최 모(27)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음식이나 화장품 등 제 피부에 직접 닿는 먹고 바르는 것부터 서서히 피하게 됐다"면서 "이전에는 유난스럽단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 워낙 이슈가 되니까 다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씨는 "무엇보다 부모님 세대까지 일본산은 안돼"란 인식이 생긴 게 신기하다"고 덧붙였다.

#2.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엄 모(32)씨는 "지난 토요일 목동 메가박스에서 소니픽처스가 수입 배급하는 영화 '스파이더맨'을 봤다. 소니 로고가 뜨자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갑자기 '일본꺼, 소니'라고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부모들이 제지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기나와 흑당 대신 필리핀 사탕수수원당, 하이테크·제트스트림·시그노 필기구 대신 모나미, 고양이 간식 마마루 대신 건강한뎀 등 일본 브랜드를 대체할만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전방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편의점선 일본 맥주 판매 '뚝'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을 찾은 강 모(35)씨는 "원래 일본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솔, 헤어케어 브랜드 시세이도, 츠바키를 썼는데 이제는 국산 제품이나 다른 외국 브랜드에서 대체할만한 좋은 제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 내 일본 화장품 브랜드 슈에무라 매장 직원은 불매 이슈와 불거진 지난 주말 새 아이브로우 서비스 취소 전화가 평소보다 늘어났다고 전했다.

일본 맥주는 제품 불매 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금액대가 저렴한데다 국산 맥주와 유럽 맥주 등 대체재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판매가 급감한 일본 맥주 자리는 국산 맥주, 중국 맥주 등이 메꾸고 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최근 5일간(3~7일) GS25에서 일본 맥주 판매 증가율은 -23.7%나 급감한 반면 국산 맥주는 8.4% 치솟았다. 중국 맥주 6.5%, 기타 4.5% 증가율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OB맥주의 카스켄(500ml)이 직전주(6월 26~30일) 2위(매출비중 10.9%)에서 1위(14.3%)로 올랐다. 6월 마지막주 가장 많이 팔렸던 아사히켄(500ml)은 13.3%이던 매출비중이 10.0%로 급격히 축소되며 2위로 밀렸다. 지난주 7위(6.0%)에 랭크됐던 기린이치



용산 아이파크몰에 있는 무인양품 매장 모습. 평일 낮이라 한산한 모습이지만, 무인양품 측은 "일본기업 불매운동 이후에도 매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방켄(500ml)도 10위(4.5%)로 밀려났다. 일본 기업들도 이 같은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을 인식한 듯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뫼비우스' 등을 생산하는 JTI코리아는 당초 11일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JTI코리아측은 "실내 흡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외 행사로 예정했는데, 당일 비가 예보돼 부득이하게 미룬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일본 브랜드를 둘러싼 따가운 시선 속에 신제품 출시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심보다는 동네상권·지방상권일수록 영향 커 = 다만, 중심가와 동네 상권의 체감 온도는 사뭇 달랐다.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동대문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는 일본

산 불매 운동의 영향을 느끼기 어려웠다. 여의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직원 역시 "주말 동안 불매 운동 영향은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동네 상권과 지방상권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움직임이 거세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맥주 판매 상위권에 아사히와 청타오, 하이네켄 등이 차지했는데, 요 며칠새 일본 맥주 수요가 뜸하다"면서 "특히 아사히는 지난주 금요일 3개 팔리더니, 맥주판매량이 가장 많은 토요일에도 한 개도 안 나갔다"고 말했다. 일본 담배의 경우 불매 운동 영향에서 비껴있는 모습이다. 이 점주는 "담배는 취향이 확고해 예전과 다름없이 팔리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 판매가 계속 줄어

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동네 슈퍼와 마트 등이 소속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일본산 제품 판매를 거부하고, 매대에서 상품을 빼는 등 적극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파는 구조라 반쯤이 어렵다 보니 참여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재고 처리로 문제 때문에 편의점 주들의 판매 거부가 어렵지만 많은 점주들이 일본 상품의 신규 발주를 자발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 브랜드인 유니클로와 무인양품도 주로 도심 중심가에 출점해 있어 불매운동 여파는 크지 않았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은 한산했지만 유니클로 매장은 세일 덕분에인지 북적였다. 입구에서부터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몇몇 보였고, 안으로 들어가니 낮 시간대임에도 사람이 제법 눈에 띄었다. 유아동 코너에서 만난 이 모(35)씨는 "일본기업 불매운동에 공감은 하지만 '가성비'를 포기할 수 없어 매장을 찾았다"고 말한다.

아이파크몰 내 무인양품도 불매운동 체감지수는 낮은 편이었다. 매장을 찾은 장 모(45)씨는 "여기에서만 파는 물건이 필요해서 오긴 왔지만, 한번쯤 일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인양품 점원은 "아이파크몰 매장은 매출이 잘 나오는 축에 속하는데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후를 비교해 매출이나 방문고객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남주현 기자 joo@
박미선 기자 only@

CJ제일제당 "온라인 식품사업 역량 집중"

HMR 'CJ더마켓' 오픈 이어 밀키트 전문 '쿡킷' 앱 론칭
큐레이팅 서비스 등 콘텐츠로 식문화 트렌드 창출 기대

초격차 R&D 역량 기반으로 가정간편식(HMR)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이 미래 성장동력인 온라인 플랫폼 강화에 나섰다. HMR의 마지막 최대 격전지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자사 식품물에 집중하겠다는 행보다.

CJ제일제당은 가정간편식 전문몰 'CJ더마켓(CJ THE MARKET)'을 새롭게 오픈하는 한편 한층 진화된 식문화 화를 이끌고 있는 밀키트 전문 브랜드인 '쿡킷'도 전용 앱을 론칭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자사 직영몰인 'CJ온마트'를 운영하며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 소비자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개념 식품 전문몰로 접근했다. 생산자 기반의 판매에 집중하기 보다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 소비자 체험에 최적화된 종합 플랫폼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HMR 사업의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CJ더마켓'과 '쿡킷'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 상담사 챗봇을 도입하고, 고객 취향에 맞춘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니즈를 재빠르게 분석,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구



CJ제일제당은 밀키트 전문 브랜드인 '쿡킷' 전용 앱을 론칭했다. 사진제공 CJ제일제당

매 행태와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CJ더마켓은 다양한 상황과 테마에 맞는 HMR 중심의 식문화를 제시한다. '오늘 뭐 먹지?' 코너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 새로운 메뉴가 공개된다. 모든 메뉴는 '날씨', '생일', '야식' 등 다양한 테마에 맞게 제안되고, 해당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정기배송 전용 상품을 대다수 상품으로 확대했으며, 소비자는 원하는 날짜에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집들이, 생일, 휴파티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HMR 일상선물세트를 선물할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했다.

유료회원 고객 서비스도 강화해 프리미엄 멤버십인 '더프라임'은 고객에게는 회원 가입 시 2만원 상당의 가입 선물과 CJ더마켓 기프트카드 3000원, 상시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타임세일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점을 반영해 마켓 핫딜, 게릴라 세일 등도 진행한 다.

'쿡킷' 어플리케이션은 제철·시그니처·집밥·스트레스 해소·한식·글로벌 등 다양한 테마별 메뉴를 구성해 고객 취향에 맞춘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정보를 포함한 오늘의 날씨와 운세정보에 맞는 메뉴를 추천하는 챗봇 서비스도 탑재해 소비자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상품별로 원하는 배송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정일 배송', '신메뉴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로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김경연 CJ제일제당 온라인사업담당 상무는 "'CJ더마켓'과 '쿡킷'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단순 식품물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식문화 콘텐츠몰로의 활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온라인 식품사업을 강화해 한 단계 높은 HMR 사업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여름철 보양식품 한자리에 현대백화점이 초복(12일)을 앞두고 14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의 식품관에서 여름철 보양 식품들을 선보이는 '초복 상품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완도 전복(2만 원, 중·50리/1만 원, 소·50리)', '워터미블 삼계탕(8550원, 1팩)', '그리팅소프트 뿌리채소 한우 갈비찜(3만5000원, 1팩)' 등을 선보이며 10~30% 할인 판매한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농심 '트리플 짜파게티 큰사발' 출시

"짜파게티와 세계 3대 진미 트리플(송로버섯)이 만났다."

농심이 짜파게티 출시 35주년을 기념해 '트리플 짜파게티 큰사발'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심 짜파게티는 1984년 출시된 이래로 총 72억 개가 판매될 만큼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다. 특히, 많은 레시피를 만들어내며 모디슈머 열풍을 이끌어온 것이 인기비결로 꼽힌다. 농심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소비자와 함께 35주년 기념제품 출시를 추진했다.

트리플 짜파게티 큰사발은 지난 5월 트리플과 와사마요, 치즈 등 세 가지 짜파게티 응용 레시피를 후보로 스페셜 짜파게티의 콘셉트를 선정하는 소비자 투표를 통해

탄생했다. 약 5만 500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트리플 짜파게티가 70% 가량의 지지를 받아 제품화됐다.

트리플 짜파게티 큰사발은 짜파게티의 올리브유 대신 트리플 풍미유를 후춧가루로 넣어 그윽한 트리플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다. 트리플 풍미유가 식감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진한 트리플의 향이 오랫동안 남아 인성적이라는 평이다.

농심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며, 뛰어난 궁합을 자랑하는 트리플의 맛과 향이 짜파게티를 한층 고급스럽게 포장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해외로 눈 돌리는 투자자 늘었다

기업 실적 부진에 인보사 사태까지 투자할 종목 없
을 상반기 해외주식 거래 금액 21兆로 역대 최대 기록
전문가, 자금유출 우려 '경쟁력 강화·친주주 정책' 주문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옮기며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친주주 정책을 주문했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해외주식 거래금액은 180억7406만 달러(한화 21조 3635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93억1674만 달러(11조123억 원)와 비교하면 93.99%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주식 거래금액은 1141조6569억 원으로 14.90% 증가에 멈췄다. 문제는 해외주식 투자가 활발해 질수록 자금유출 우려도 커진다는 점이다.

코스피의 매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는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대내외 변수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9.14%, 22.14%, 홍콩과 일본도 14.50%, 11.17% 급등했

해외주식 거래금액 상위 종목

국가	종목명	거래금액
미국	아마존	1015억7033만 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994억3504만 원
미국	알파벳	897억9400만 원
미국	엔비디아	521억6764만 원
중국	텐센트	224억5311만 원
중국	사오미	98억9259만 원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만 코스피는 4% 상승에 그쳤다.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 "반도체 제재와 미중 무역갈등 등의 이슈로 국제 교역량이 줄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며 "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부진해 국

내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의 성장성에 대해 의심 받고 있는데 특히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믿고 살만한 주식이 없다"며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주가 무너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믿고 투자할 종목이 없는 점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한달 동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마존(1015억7033만 원), 마이크로소프트(994억3504만 원), 알파벳(897억9400만 원), 엔비디아(521억6764만 원)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가 역시 각각 4.42%, 3.36% 상승했다.

시장별로는 미국(15조407억3724만

원), 홍콩(3조1618억9728만 원), 중국(1조1289억9912만 원), 일본(1조972억6242만 원), 유럽(2160억5778만 원) 순으로 매매가 많았다.

이경수 메리츠증권증권 센터장은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해외증시와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증시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하고 선진국 대비 주주환원정책이 빈약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고 본다"며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의 ETF(상장지수펀드) 구매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이다원 기자 leedw@

코스피, 대외 변동성 확대에 2% 급락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누그러져
日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영향
의료정밀·비금속광물 하락폭 커

코스피가 투자심리 악화로 2% 넘게 급락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도 증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8일 전일보다 46.42포인트(2.20%) 하락한 2064.17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31일(2041.74) 이후 한 달여만의 최저 수준이며, 하루 낙폭으로는 5월 9일(-3.04%) 이후 최대였다. 특히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안팎 낙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변동성 지수를 제외한 대부분

의 업종이 하락마감했으며 의료정밀(-6.65%), 비금속광물(-3.99%), 종이·목재(-3.57%), 건설업(-3.19%) 등의 하락폭이 특히 컸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으뜸세로 마감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0.80%) 뿐이다.

장 마감 직전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이미 내린 지수를 반등시키지는 못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37억 원, 89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548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의 난항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인하(insurance cut) 기대 약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다"며 "변동성 확대는 일시적이거나 주식비중 축소 등으로 뇌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침체"라며 "6월 고용지표 발표로 미국 경제 호조를 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 추가 하락보다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2050대에서 한 차례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도 시가총액이 큰 제약, 바이오 업종이 큰 폭으로 내리며 3%대 급락했다. 개인은 126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81억 원, 281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압박했다.

신라젠(-4.44%), 헬릭스미스(-4.40%), 메디톡스(-5.12%), 휴젤(-5.85%)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의 투자 심리 악화가 두드러졌다. 박기영 기자 pgy@

신한금융투, IB 강화 조직개편 단행

신한금융투자가 '초대형 투자은행(IB)'로의 도약을 위해 영업경쟁력과 관리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8일 신한금융투자는 IB 시장 지배력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GIB(글로벌 자본시장) 영업조직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기능별 본부 전담 편성을 위해 구조화 금융본부와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했고 대기업금융2부를 통해 커버리지 기능도 강화한다. 또 초대형 IB 성장을 위한 업무지원 기능 강화 목적으로 경영지원그룹을 신설해 효율적 자원 배분과 전자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빠른 대응과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사업본부를 전략기획그룹에 편입했다.

이와 함께 대체투자, 부동산, 글로벌 IB 등의 증가에 따라 심사2부를 신설해 심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은 오는 10일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 6호 초대형 IB로 도약하겠다는 신한금융투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켜 줄 것을 보인다. 그간 시장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당초 6월로 결정했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6600억 원 출자 계획을 8월로 두 달 연기하자 신한금융투자의 초대형 IB 추진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해왔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연기한 것은 증자 이후 추진할 사업계획의 세부 이행방안 보안을 위한 것으로, 예정대로 증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 측과 조율 중"이라며 "이번 조직개편도 계획대로 증자가 이뤄질 경우 초대형 IB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테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디에스티, 자원개발 사업 실적 없는데...

양성문 대표, 나홀로 상여금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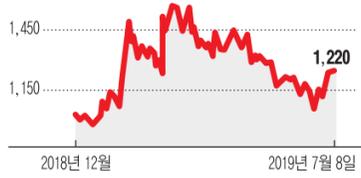
회사 매출 책임 기계장비 사업 견인
영업실적 따른 인센티브 지원 책정
임원 중 유일하게 2년간 18억 받아

바나듐 개발 사업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에스티의 양성문 각자대표가 임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매년 상여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 사업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회사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기계장비 사업을 이끄는 데 따른 보상 성격이 짙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양 대표는 지난 1분기에만 5억778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 중 5억100만 원이 상여금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각각 7억5000만 원, 9억200만 원가량의 상여금을 받았다. 2년간 받은 보수는 급여를 더해 21억 600만 원에 달한다.

디에스티에는 현재 사외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제외하고 김윤기 각자 대표이사,

디에스티 주가
(단위: 원)



김태형·양은경 사내이사 등 4명의 등기임원이 있다. 이들 중 실적과 연계해 상여금을 받는 것은 양 대표가 유일하다.

과거 한국자원투자개발은 2016년 6월 옛 디에스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주 중 1명이자 기술과 영업을 총괄하고 있던 핵심 인력인 양 대표(당시 상무)와 인센티브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양 대표가 2021년 5월까지 기술개발 및 영업총괄 부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 매년 10억 원의 인센티브 보수를 받는 것이 골자다. 또 자동차 공조부문 관련 영업이익이 30억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조정되는 부수 조건도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양 대표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받은 누적 상여금은 21억5000만 원에 달한다. 자원개발 사업이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회사 내부에서 실적을 내는 곳은 공조부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자동차 공조부문에서 발생한 별도기준 누적 영업이익이 104억 원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 수준을 달성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디에스티는 M&A(인수합병)를 통한 공조부문의 역량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196억 원 규모 유상증자 중 60억 원을 자동차 공조설비 회사 인수에 쓸 예정이다. 최근 3년 매출은 50억 원대, 6억~10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곳으로 매출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버는 디에스티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아이티센, 블록체인 금거래소 내년 오픈

아이티센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거래소 오픈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내년 초 디지털 금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IT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아이티센은 지난해 신성장동력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거래소 사업을 시작했다. 신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금거래소스리엠, 콤팩시스템을 인수하기도 했다.

아이티센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24시간 금거래가 가능한 '센골드(CENGold)'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을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8일 "7월 중순에 내부적으로 알파테스트를 진행하고, 9월에 베타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

며 "9월부터 디지털 금거래소 관련 홍보를 시작한 후 내년 1월에는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거래소에서 금을 거래하는 방법은 기존 암호화폐 방식과 유사하다. 금거래 플랫폼인 센골드에서 투자자가 금의 무게만큼 측정된 CG코인을 매매하는 구조다.

회사 측은 "CG코인으로 거래하면 한국금거래소가 KRX금시장에서 금을 사들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실물 금까지 연결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기존 KRX시장과 달리 24시간 매매가 가능한 게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아이티센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으로 3102억4100만 원, 영업손실 46억1200만 원, 당기순손실 56억71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정희 기자 ljh@

“자회사에 대한 자신감과 주주가치 제고”

LS전선, 'LS전선아시아' 지분 확대

LS전선이 LS전선아시아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요 자회사의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대주주로서 지속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전선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LS전선아시아의 주식 총 5만550주를 4억3971만 원에 매입했다. 지난달에도 총 6만 5012주를 5억4383만 원에 사들였다. LS전선이 LS전선아시아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LS전선아시아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시기였던 4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다.

LS전선의 베트남법인인 LS전선아시아는 지분을 53.17%를 갖고있는 LS전선이 최대주주다. 이에 지분 확보를 위한 주식 매입 차원보다는, 주요 자회사인 LS전선아시아에 대한 자신감과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 매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 상장한 LS전선아시아는 최근 3년간 안정적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매출 1223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거둬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2분기 LS전선아시아는 매출액 1382억 원, 영업이익 67억 원을 거둘 것

LS전선의 LS전선아시아 주식 취득 일지
(단위: 원, 6·7월 기준)

연월	종감	취득단가	매수금액
6월 12일	9353	7399	69,202,847
6월 13일	500	7320	3,660,000
6월 17일	9400	8051	75,679,400
6월 18일	1200	8173	9,807,600
6월 19일	3000	8424	25,272,000
6월 20일	1500	8453	12,679,500
6월 24일	3660	8665	31,713,900
6월 26일	3000	8750	26,250,000
6월 27일	14399	8704	125,328,896
6월 28일	19000	8644	164,236,000
합계	65012주	매수금액합계	5억4383만 원
7월 1일	31470	8,530	268,439,100
7월 2일	10,800	8,815	95,202,000
7월 3일	8,280	9,187	76,068,360
합계	5만550주	매수금액합계	4억3971만 원

로 전망된다. 현재 LS전선아시아의 주가는 뚜렷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안정적 실적까지 더해지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도 부각돼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8000원→1만 원), NH투자증권(7400원→8000원) 등이 LS전선아시아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칩니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굿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bithumb 빙썸 빙썸 지수 (2019년 7월 8일 18:00, KST)

www.bithumb.com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87,400	2,700 (0.6%▲)	모네로	122,700	5,200 (4.4%▲)
리플	471	-5 (1.1%▼)	비트코인골드	30,010	10 (-)
라이트코인	143,100	- (-)	이더리움 클래식	9,465	100 (1.1%▲)
대시	198,100	-100 (0.1%▼)	퀀텀	5,765	60 (1.1%▲)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초입기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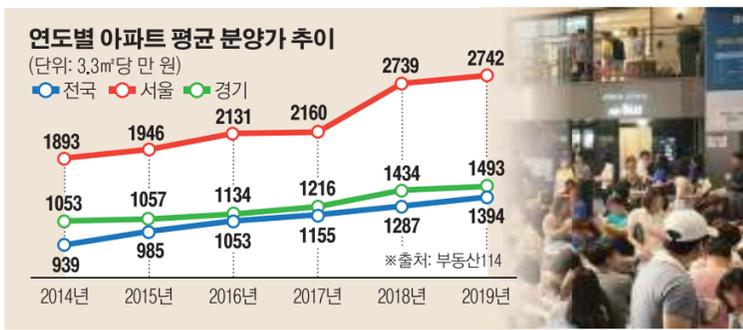
(민간택지 적용)

아파트값 들썩이자 도입 급선회 분양가 낮아지면 공급 부족 야기 '되레 집값 상승 부추길 수도'

정부의 수차례 업포에도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발표가 초입기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제도 도입 시기 조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만 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불만을 표하긴 했지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자 제도 도입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하며 34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미 KB부동



산이나 부동산114 통계로는 한 달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분양가 역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42만 원으로 2014년의 1893만 원에 비해 5년 사이 44%나 급등했다.

특히 최근 강남을 비롯해 강북지역에서까지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 역시 정부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금을 얻고, 조합원 부담을 낮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자체사업을 하는 단지 역시 택지 매입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이 비용을 인정받기 힘들다. 결국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가 늘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분양 지연이나 사업 연기로 수급의 불일치가 가장 우려된다"면서 "이 경우 규제 완화 시 집값이 갑자기 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집값이 비싼 지역은 '로또 분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집값 오를땐 '경충' 내릴땐 '짚کم'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서울 집값이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오를 때는 크게 오르고 내릴 때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부터 4년 3개월간 27.69% ↑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후 2.1% 떨어져

한국감정원은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114 등 민

간 시세 조사 자료보다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세 통계를 잡고 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8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7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29일까지 4년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7.69%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해 9·10월까지 상승세를 탔다.

반면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24일 기준 2.10% 떨어지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집값이 하나도 내리지 않은 것 같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8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승기에 30% 가까이 오른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기에는 2%밖에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그동안 주택시장 상승기와 하락기의 집값 변동률을 보면 상승 폭은 컸던 반면 하락 폭은 매우 미미했다.

2014년 7월 28일~2018년 10월 29일 4년 3개월 동안 서울에서 많이 오른 곳의 상승세만 보더라도 강동구는 39.87% 올랐고, 강남(38.84%)·동작(31.90%)·양천(31.50%)·서초(31.45%)·강서구(30.36%) 등도 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7개월 동안 강동구는 4.76% 하락하는데 그쳤고 강남구는 4.07%, 양천구와 서초구는 각각 3.31%와 3.06%만 빠졌다.

광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정부가 촘촘한 규제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꾀했지만 집값이 오를 것에 비해 너무 적게 내린 것을 보면 여전히 서울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포스코건설, 초고층 건설 필요한 '콘크리트 압송 기술' 국산화

부산 '엘시티'·'여의도 파크원' 적용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과 함께 초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송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포스코가 생산한 고품질 철강재와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고압 콘크리트 압송 기술'을 결합해 초고층 건축물인 부산 '엘시티 더샵'과 서울

'여의도 파크원' 건설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총높이 411m로 국내 최고 높이의 주거 단지인 부산 엘시티는 3월 25일에, 총높이 333m의 여의도 최고층 복합문화시설인 파크원은 4월 30일에 각각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마쳤다.

초고층 건축물 건설을 위해서는 고강도의 압송관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최상부가

지 쏘아 올려야 한다. 이때 압송관 내 높은 압력과 지속적인 마찰로 최고 품질의 철강재가 필요해 그동안 고가의 유럽산 제품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세안 등 중소기업과 명지대 토목공학과와 함께 약 1년간의 공동연구를 거쳐 압송관 소재와 압송기술을 개발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LH, 내포신도시 내 산업·산학협력시설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34필지와 산학협력시설용지 18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최고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산학협력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최고 7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용지별 입주 가능 업종에 부합하는 사업자로 산업시설용지는 도시형공장·첨단업종공장 등을, 산학협력시설용지는 연구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

내포신도시 위치도



을 건축할 수 있다. 산학협력시설용지의 경우 연면적의 20%, 1층 이하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성격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안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일 말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일 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충일과 모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직에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한 기술이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물 주는 변호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쾌리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적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년 지음 / 200쪽 / 국문판형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을 읽는 느낌의 철학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지음 / 232쪽 / 4800원 / 215,800원

집주인 임대수입 들여다본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내년 가동
행안부·국토부·법원 자료 연계 부부합산 정보까지 파악
과세 목적... 국토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과 차별화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국토부의 시스템이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면 국세청의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 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과세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 내 대상자를 선정해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박정식 서울고검장 사의

윤석열 지명 후 네 번째 '검사장급'



박정식(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고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뒤 검사장급 인사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박 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를 통해 "근무하는 동안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검찰 가족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것을 무한한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귀한 경험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사직 인사를 했다. 박 고검장은 "조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검찰이 현재의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많은 응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반바지 입고 출근해요

8일 경기 수원시청 로비에서 '즐거운 반바지 패션쇼'가 열렸다. 이날 모델로 나선 시청 공무원과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반바지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도시재생 해법 찾아 중남미로

멕시코·콜롬비아 3개 도시 순방
공중 케이블카 등 교통정책 모색



의온상이었던산동네 빈민촌이 도시재생의 아이콘으로 거듭난산토도밍고 지역은 2016년 도시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리관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해 국가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 중 하나인 중남미로 도시 외교 외연을 대폭 확장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의 교류협력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8일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까지 대한민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 대상국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콜롬비아의 강소 혁신도시 메데진, 수도 보고타 등 3개 도시를 방문한다. 중남미 지역 공식 방문은 2012년 브라질·아르헨티나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중남미 순방은 '도시재생'과 '교통'에 방점을 둔다. 사회통합에 방점을 둔 도시재생과 교통 혁신을 통해 지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현장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계 최초로 공중 케이블카를 대중교통 시설로 설치한 콜롬비아 메데진의 산토도밍고 지역을 방문한다. 범외

또 세계적 보행 친화 모범 사례로 알려진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 현장을 찾아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공원인 멕시코시티의 '차폴테펙 도시공원'도 둘러보며 서울시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청년에게 투자해 취약계층 청년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멕시코시티의 사회혁신센터 '필라레스(PILARES)'도 방문한다. 박 시장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시티 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관계를 격상한다. 메데진과도 첫 업무협약을 맺어 우호협력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아마존에서 핑크 돌고래와 여름휴가를

페루관광청, 이색 휴가지 추천



아마존 럭셔리 크루즈 사진제공 페루관광청

정경 자연의 아마존에 가면 핑크 돌고래와 함께하는 수영부터 피라냐 낚시까지 할 수 있다. 남들과 다른 느낌의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럭셔리한 크루즈에서 아마존의 풍광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일 페루관광청에 따르면, 페루 북부 아마존 지역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정글 지대다.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신비로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아마존 정경 자연 그 자체를 즐기고 싶다면 '파카야 사미리아 국립 생태 공원'을 추천한다. 파카야 사미리아 국립공원은 60%

이상이 열대 우림인 이키토스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마존 보호 지역이다. 하늘을 그대로 비추는 맑은 강물과 천혜의 자연이 만들어 낸 다채로운 빛깔의 경관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는 큰부리새, 핑크 돌고래, 피라냐 등 아마존에만 서식하는 야생 동물도 만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ksh@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잼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1 쌍용차 두꺼운 D필러 공통 적용
- 2 BMW의 호프마이스터 킷
- 3 렉서스 램프는 LEXUS의 L자 형상
- 4 인피니티 그릴 위쪽과 아래쪽이 일본도(日本刀) 형상

전통미 살린 '플랫폼 공용화'로 차별성 부각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자동차 디자인 전략

'표현하다, 지시하다, 성취하다' 디자인(Design)이란 말은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탄생했다.

흔히 자동차는 '산업 디자인'의 정수라 말한다. 그럴 만하다. 디자인 하나에 회사가 되살아나기도, 거꾸로 쇠락의 길을 걷기도 한다. 때론 유명 디자이너의 영입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디자인이 자동차의 기능과 브랜드의 가치, 지향점(지시)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성취)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신차가 나올 때마다 "5년 동안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차를 개발했다"는 홍보 문구가 단골로 등장했는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하나의 엔진을 여러 차가 함께 사용하고, 잘 만든 플랫폼을 등급별로 나눠쓰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개발비용이 이전보다 적게 들어가면서 이런 홍보 문구가 사라진 것.

기술 개발비가 줄면서 디자인 면에서 성

대우차 중형세단 '레간자'

한국 기와 '처마'서 영감 형상화

닛산 '인피니티'

日 전통칼 '일본도' 그릴에 심어

BMW 시리즈

차체·지붕 연결 '호프마이스터 킷'

쌍용차 '코란도C·티볼리'

강인·튼튼함 상징 'D필러' 통일

공 스토리를 쓰려는 노력은 더 커졌다. 그 결과 원가 절감은 물론 설비를 바꾸지 않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일정 범위 안에서 디자인을 바꾸면, 기존 설비를 사용하면서 새 모델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디자인 기

술의 발달이다.

◇나라마다 한국의 처마, 일본도(刀)까지 형상화 = 이런 디자인에는 브랜드 특징이 잘 담겨 있다. 비슷한 디자인 맥락을 이어가면서 브랜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때때로 자국의 전통적 이미지를 자동차 디자인에 새겨 넣기도 한다.

국산차 가운데 좋은 사례가 1990년대 대우차 시절 출시된 중형 세단 '레간자'다. 당시 대우차는 이탈리아 카로체리아 '이탈디자인'에 레간자의 디자인을 맡겼다. 포니를 디자인했던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레간자에 한국의 전통미를 새겨 넣기로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차체 벨트라인(도어와 유리창의 경계선)을 그릴 때 뒤쪽으로 갈수록 치켜 올라가는 모습을 디자인했다. 한국의 전통미를 더하기 위해 우리 전통 기와의 '처마'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일본 닛산은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INFINITI)를 디자인하면서 전통 칼 '일본도(刀)'의 모습을 차체 디자인에 심었다.

인피니티의 4세대 G시리즈의 앞 그릴은 일본도를 옮겨 놓은 모습이다. 반짝이는 크롬 그릴에 일본 전통미를 심어 넣은 것.

몇몇 국가에서 "일본 국수주의를 표방한 디자인"이라며 반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닛산은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는 이런 류의 '반일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훗날 인피니티의 이런 디자인 전략은 전체 라인업으로 확산했다.

◇호프마이스터 킷...BMW가 고집해온 디자인 터치 = 독일 BMW는 고집처럼 전통적인 디자인 전략을 담기도 한다.

앞쪽 그릴을 2개로 나눈, 사람의 콩팥을 닮았다는 의미로 불렸던 키드니(Kidney) 그릴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BMW가 수십 년 이어온 디자인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호프마이스터 킷'이다.

자동차는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을 일컬어 앞쪽부터 A필러, B필러, C필러라고 부른다. SUV와 왜건 등은 이 기둥이 하나 더 있는 만큼 가장 뒤쪽 기둥을 D필러라고 부른다.

BMW 세단은 앞에서 3번째 기둥, 즉 가장 뒤에 있는 기둥이 위쪽으로 말려 올라간다. 이른바 '호프마이스터 킷'이다.

단순한 직선이 아닌, 지붕에서 시작해 차체와 만나는 부분을 넓게 확대하는 방식

이다.

1970년대 BMW나, 2010년대 BMW나 하나같이 호프마이스터 킷을 쓴다. 최근 몇몇 모델이 이런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호프마이스터 킷은 BMW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둥의 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통적으로 BMW 세단의 안정감 넘치는 디자인을 그려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쌍용차 역시 최근 등장하는 모든 차종에 통일성을 앞세우고 있다.

전조등과 그릴 모양이 서로 비슷비슷하다. 그러나 쌍용차 역시 BMW와 마찬가지로 필러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쌍용차는 코란도C와 G4 렉스턴, 티볼리, 신형 코란도까지 모두 D필러(앞에서부터 4번째 기둥)를 두텁게 디자인하고 있다.

SUV의 강인함과 튼튼함을 상징하기 위해 모두 두터운 D필러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 디자이너는 "그릴과 엠블럼 이외에 같은 디자인이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특히 플랫폼이 공용화되면서 앞서 개발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소폭 디자인이 변경되다 보니 비슷한 디자인 터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제네시스 곳곳에 펼쳐진 '날개 모티프'



G80 후면 테일램프·G90 전면 그릴 등 엠블럼 형태 일맥상통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엠블럼 형상을 자동차 디자인 곳곳에 심어 냈다.

제네시스 2세대(DH)가 론칭한 이후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범하면서 디자인 정체성이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도 이런 전략 덕이다.

먼저 고급차가 아닌, 하나의 고급 브랜드로 출범하면서 제네시스의 날개 엠블럼은 과감하게 크기를 키웠다.

동시에 이후 등장하는 신차들은 이 제네시스 엠블럼의 이미지를 차체 곳곳에 심어 넣기 시작했다.

먼저 제네시스 엠블럼은 날개를 활짝 펼친 V자 형태다. 중심 모델인 G80의 후면 테일램프는 이 펼친 날개를 모티프로 디자인했다.

아랫급으로 등장한 스포츠 세단 G70 역시 마찬가지다. G70의 뒤쪽 테일램프는 트렁크와 맞닿는 면에 굴곡을 줬는데

이게 엠블럼 형태와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제네시스 엠블럼의 왼편을 고스란히 옮겨다가 G70 테일램프 오른편에 맞추면 형상이 비슷하게 맞물린다.

이처럼 디자인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은 크게 5각형 구조인데, 앞으로 출시될 제네시스는 5각형을 디자인 전략으로 삼을 예정이다.

앞서 올해 초 선보인 EQ900의 부분변경 모델인 G90은 이전과 달리 전면 그릴



이 5각형으로 바뀌었다.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 데뷔 예정인 첫 SUV 모델 GV80도 비슷한 그릴을 지녔다.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인 G80 후속 역시 5각형 전면 그릴을 달고 나온

다.

제네시스는 엠블럼의 날개 형상을 전체 라인업에 확대 적용하고, 제네시스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이곳은 독립료리집

100년 전, 낯선 땅에서
독립투사들이 연명하기 위해
먹었던 끼니를 소개합니다

김구 선생의 대나무 주먹밥부터
지복영 선생의 파전병까지

그분들이 드셨던 한 끼를 먹으며
그분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이곳.

독립료리집이 6월 19일부터 한 달간
익선동 한옥 거리에 문을 엽니다

100년 만에 되찾은 식탁
독립료리집

Hope.
Together.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2019. 6. 19-7. 21 |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70-1 |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뒷걸음치는 수출, 貿保 역할 어느 때보다도 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기자간담회

‘4차 산업혁명 대응’ 핀테크사업부·고객가치부 신설 조직개편 수출여건 악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우선 전방위 금융지원

이인호(사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무역 금융의 총력 지원을 통해 수출 활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핀테크와 무역보험을 융합해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진화하고, 고객 지원 역량을 일원화해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무보는 이달 4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핀테크 전담부서인 핀테크사업부와 고객 지원 컨트롤 타워인 고객가치부를 신설했다.

핀테크사업부는 창립 이래 처음 설치된 부서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기술 주도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무역보험 생태계 안에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주도한다. 고객 만족과 교육·컨설팅 기능을 한곳에 모은 고객가치부는 기업의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이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며 “핀테크와 무역보험이 하나가 될수록 고객이 느끼는 편리함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무보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 금융지원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신시장·신산업 지원 △플랫폼·선박 수주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수출 활력 제고 대책에 따라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과 수출 계약 기반 보증 등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했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은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개 은행과 손잡고 상반기 1175억 원을 지원했으며 시범 운영 중인 수출계약 기반 보증은 상담 115건, 심사 중 39건 등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수출기업의 호응도가 높다고 무보는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액 총량은 전



년 대비 3조 원가량 늘려 55조 원으로 잡았다.

이 사장은 “외부 충격이 오면 회사들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듯, 수출 여건이 악화할수록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며 “무보의 전방위 무역금융 지원이 이들 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보는 이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등 신

시장 개척과 정부 지정 신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 수출구조도 혁신한다. 신남방(ASEAN·인도)·신북방(CIS·국·몽골) 진출 지원을 위한 △보험한도 최대 2배 우대 △기준한도 일괄 상향(10%) 등 특별대책을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에너지 신산업(2차 전지 등),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 등) 등 12대 신산업에 대해 △보험한도 최대 2배 우대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20% 할인도 제공한다.

무보는 해외 우량 발주처 금융한도를 사전에 제공해 우리 기업의 플랫폼 수주 확대를 돕고 벤더 페어를 열어 중소 기자재 업체에 시장 개척의 활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1969년부터 수출지원 정책 금융의 한 축을 맡아온 무역보험 담당 기관으로서 엄중한 수출 여건과 뒷걸음치는 수출 실적에 무보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을 알고 있다”며 “수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각오로 지원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조직과 고객을 향하는 마음으로 다음을 대비해 우리나라 대표 수출지원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에어서울, 파격 발탁 인사 단행 3년차 평사원을 해외 지점장에

에어서울이 연공서열을 깨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에어서울은 문규호(사진) 인천공항서비스 지점 사원을 7월 8일자로 캄보디아 시엠레아프국제공항 지점장으로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지점장은 2017년 신입 공채로 입사한 직후부터 인천공항 지점으로 발령받아 2년 넘게 공항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다. 에어서울 설립 초기부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삿포로, 대만, 괌 등의 수많은 신규 취항 업무를 지원하고, 승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다방면의 공항 경험과 뛰어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영어와 중국어에도 능통해 해외공항 지점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문규호 지점장은 뛰어난 역량은 물론, 특유의 젊은 감각을 갖춘 신세대 공항서비스 전문가”라며, “탁월한 인재이기 때문에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했다. 앞으로도 젊은 기업답게 성과와 역량 중심의 평가로, 창의적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가족 초청 회사 견학·안전연설 채우기 행사



대우조선해양이 5일 가족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사를 포함한 임직원 가족 50여 명을 초청해 회사 견학과 함께 안전연설 채우기(사진) 행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아빠와 남편의 일터에 관해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가족들을 위해 홍보 전사관, 현장방문, 진수식(선박을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의식)을 함께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관람을 마친 가족들은 아빠에게 전하는 안전메시지를 작성하고 안전연설에 채워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했다. 작성된 안전메시지는 가족사진과 함께 회사가 준비한 액자에 넣어 아빠의 근무지에 부착하고 각 가정에도 전달됐다. 또 우수한 안전메시지를 작성한 가족을 선정해 감사의 카드를 전달하고 자녀들에게 회사가 준비한 기념품도 제공하며 가족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상반기 ‘대한민국 여성 엔지니어賞’ 심민경·이미영·강소영 씨

〈아모레퍼시픽〉 〈쿠첸〉 〈투비스소프트〉

7월 엔지니어상 현충민·백영현 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올 상반기 ‘대한민국 여성 엔지니어’ 수상자로 심민경(맨 왼쪽 사진부터) 아모레퍼시픽 수석연구원, 이미영 쿠첸 파트장, 강소영 투비스소프트 수석연구원 등 3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심민경 연구원은 쿠첸 형태 파운데이션에 적용되는 분산 기술을, 이미영 파트장은 전기발열용 온도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해 다양한 밥맛을 구현하는 기술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소영 연구원은 모든 IT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도구 ‘넥사



크로플랫폼17’을 만들었다.

7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는 현충민(왼쪽 네 번째) 삼성중공업 프로와 백영현(맨 오른쪽) 유니온커뮤니티 연구소장이 뽑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현충민 프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역세팅 기술과 병행 예측 시스템인 ‘R3S’를 개발해 국내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

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 백영현 연구소장은 금융거래에 쓰는 디지털 도장스캐너 및 지문인식 시스템의 위조 판별 기술을 개발·상용화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 1명씩을, 여성 엔지니어는 연간 6명을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준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딸아 아들이,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하거라”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부모님과과의 만남’ 행사 열어

동아제약은 7월 제22회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행진 10일째를 맞아 강원도 삼척시 일대에서 ‘부모님과과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초청된 대원 가족 170여 명은 낮 12시,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 근덕초등학교 동막분교에서 대원들과 만나 씨스포빌 리조트까지 총 3시간 동안 8.7km를 함께 걸었다. 〈사진〉 행진 후 씨스포빌 리조트에서 참가

대원들과 가족들은 그동안 대원들이 걸었던 국토대장정 촬영 영상을 감상하고 저녁을 먹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홍수지 참가대원의 어머니 이현자 씨는 “길고 힘든 여정이지만 밝은 모습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딸을 보니 놀랍고 자랑스럽다”며 “제 딸을 포함한 대원 모두가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카스와 함께하는 제22회 동아제약 대



학생 국토대장정은 지난달 28일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출발,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완주식을 가진다.

유혜은 기자 euna@

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에 노광일 前 외교부 대변인

노광일(60) 전(前) 외교부 대변인이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감사에 임명됐다.

노 신임 감사는 1981년 외무고시 15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주(駐)태국 대사와 주뉴질랜드 대사, 국무총리 외교보좌관 등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종화 기자 pbell@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한국 고무기술인 대상’ 수상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정진수대표가 한국고무학회로부터 ‘한국고무기술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정대표는 27~28대 한국고무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해당 분야 전문 기술인 출신이다. 정 대표는 고무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업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 성과 등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인사

- ◆국회사무처 △국회방송국장 임광기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혁신담당관 강대금
- ◆통계청 ◇일반 고위직 공무원 전보 △통계정책국장 강창익 △통계데이터허브국장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은순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본부장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오명준 △기업지원본부장 이주현 ◇실·단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백성진 △사회적가치실장 조상동 △인재경영실장 김정욱 △사업관리단장 정재학 △기술사업화단장 전유덕 △혁신기반단장 이찬영 △국제협력단장 강성룡

- △규제혁신단장 이현영 △지역산업단장 김병규 △중견기업단장 박한철 △소재부품단장 전계영 △산학협력단장 변동철 △산업기술정책센터장 김현철
- ◆신한금융투자 [임원 전보] ◇전무대우 △투자금융본부 이재원 △기업금융본부 황제이슨 ◇본부장 △구조화금융본부 이상훈 [부·점장 신임] ◇부서장 △IPO부 신석호 △PI부 이정현 △자금관리부 정규호 △심사2부 정재훈
- ◆하이투자증권 [신규 보임] ◇센터장 △강남WM센터장 신현철 ◇지점장 △강남WM1 지점장 장운호
- ◆현대약품 △경영관리본부장 상무 우택상

부음

- ▲박한태 씨 별세, 박상면(GS건설 전무)·미옥 씨 부친상, 김애경(단국대 교수) 씨 시부상, 박지영(법무법인 정원 변호사)·지성 씨 조부상 = 7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9일 오후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1일 오전 9시. 02-2258-5940
- ▲김봉익 씨 별세, 박병욱(자영업)·병식(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장)·병주(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사무총장)·명숙(주한국정책능력진흥원 이사)·명희(JP대흥 대표) 씨 모친상, 임병희(서울 정성약국 약사)·윤광순(안양 동안고 미술교사)·장명희 씨 시모상, 유인웅

- (자영업)·진재완(JP대흥 이사) 씨 장모상 = 8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58-5940
- ▲이상훈(전 저축은행중앙회장) 씨 별세, 김성동(전 국회의원)·강제호(삼일가족 부회장) 씨 장인상 =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2-3410-3151
- ▲김태현(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초대 명예교수) 씨 별세, 이계엽 씨 남편상, 김승룡·승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기술연구소장)·타미김(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의원) 씨 부친상 = 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231

한컴산청 ‘한컴라이프케어’ 새출발 우준석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한컴산청이 ‘한컴라이프케어’로 사명을 변경하고, 우준석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우 신임 대표는 LG전자, 새롬기술 등을 거치며 10여 년간 통신 장비 개발업무를 담당했다. 한컴MDS에서는 16년 이상 모바일, 자동차, 국방항공 분야의 임베디드시스템 및 SW, 빅데이터, AI, 로봇사업과 해외사업 등을 이끌며 한컴MDS 사업총괄 사장, 한컴로보틱스 대표를 역임했다. 김병근 기자 nova@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한 가지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여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정책을 통합해 수행하는 것이다. 통합부처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경제구조 개혁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제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는 기술이나 사업보다 구조와 제도에 달려 있다. 개별 기업의 혁신적 기술사업이 꽃을 피우고 성장하려면 경제 구조와 제도의 토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전통산업의 대기업 위주로 고착된 경제구조를 혁신 산업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하물며 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아닌 기업의 구조변화도 어려운데, 몇 십 년 동안 고착되어온 한 국가의 경제구조를 혁신지향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제구조를 단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과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경제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2단계→3단계 식으로 쌓아 올려가야 (build-up) 가능한 것이다. 경제구조 개혁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건물의 기초와 구조를 변경하는 것과 같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 거기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구조 변경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개혁을 한 정권의 정부가 맡아서 다 추진해 종결할 수 없다. 여러 정권의 정부가 서로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범국가적 합의와 국민적 동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기가 이루어져야 중도에 정부가 교체되어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조선, 해운, 자동차, 철강, 에너지 등의 여러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으며 실패한 사례를 보면 이런 노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정부 내의 부처 간에도 입장이 달라 혼선이 발생해 혼란을 야기한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여러 정당의 정치적 합의와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발생하는 반대와 같

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며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과거 개발 독재 시대와 다른 상황에서 중장기 경제혁신 계획 자체가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 먼저 정치권에서 초당적 차원의 경제구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경제 개조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그리고 현재와의 괴리(gaps between AS-IS and TO-BE)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들을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을 법령으로 제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중도에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경제구조의 개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조직에서는 '혁신성장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혁신성장을 맡고 있다. 현재 진행

형의 경제정책 운영과 미래 지향적 혁신정책은 이질적이라 둘 다 잘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알려진 혁신정책에 예산만 늘려 투입하는 정도에 그칠 뿐, 구조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 기존 주력 사업을 맡은 부서에서 전혀 다른 신규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여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정책을 통합해 수행하는 것이다. 통합부처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경제구조 개혁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제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구조 개혁이 정치적 구호나 정책 판단으로는 멋있다. 하지만 이행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 한 정부나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IMF 위기가 왔을 때의 각오로 전 국민이 나서야 가능한 것이다.



정상조의 생각

서울대 법대 교수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도 일본과 타협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이제 일본은 외교적 항변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는 공격의 시작일 뿐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었겠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예고되었고 예상되었던 일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통화 스와핑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의 보복과 미국의 종용으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바로 그 합의의 핵심인 화해지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야당으로서 위안부 합의가 1965년 한일협

정과 마찬가지로 굴욕적 협상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집권한 후 아무런 외교적 대책도 없이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서 지난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 집행을 위해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매각이 진행되자,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 즉 경제보복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다. 국제사회는 정글과 마찬가지로 힘, 즉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지만, 일본은 특히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에게 잔인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아베 신조나 도널드 트럼프의 독특한 성향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국제질서의 본질이다.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외환위기를 맞아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때에도, 일본 정부는 강자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 독도 문제 등에 관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빌려서 외환위기를 극

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독도를 공동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大和堆) 어장을 일본과 공동 어로구역으로 인정하는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일본이 취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통화 스와핑이나 어업협정과 다른, 일본의 대(對)한국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이 일본에 버금가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기술패권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기 위해서 화웨이 제품의 구입·사용을 금지하고 화웨이에 대한 기술과 칩 제공도 금지한 것처럼, 아베는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과 현대차의 차세대 자동차 기술 개발을 틀어막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베의 전략은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소니의 전자제품

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면서 미국에 버금가는 제2의 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1985년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플라자합의에 따라서 인화 가치를 절상하는 환율 조정을 하면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된다.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이야기하고 한미동맹은 도외시하는 가운데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고립되고 경제보복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도 멈춰 버릴지 모른다. 일본의 공격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겠지만, 승소를 기다리면서 첨단산업이 황폐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국산화도 당연히 추진해야 하겠지만, 당장 공장을 멈추고 국산화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다.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존중해야 할 때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에드먼드 버크 명언 "사색 없는 독서는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영국 보수주의 대표적 정치이론가. 정당 정치를 통한 권력 남용의 견제와 정의, 자유를 주장했다. 시민의 행복과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제도와 방법을 주장한 그는 오늘날 세상을 떠났다. 1729-1797. ☆ 고사성어 / 백년해로(百年偕老) 부부의 인연을 맺어 평생을 같이 즐겁게 지낸다는 말. 원전은 시경(詩經) 격고(擊鼓). '격고'는 고향을 등지고 멀리 떨어진 전장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병사가 읊은 애절한 시이다. "죽거나 살거나 함께 고생하자던(死生契闊)/당신과는 굳게 언약 하였고(與子偕老)// 섬섬옥수 고운 손 힘주어 잡고(執子之手)/단 둘이 오손도순 백년해로(與子偕老)하자고.' ☆ 시사상식 /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 보상과 벌점 강도가 점점 강해져야 일의 수행 능력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효과를 말한다. 보상으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려면 보상의 양을 점점 더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벌을 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려 한다면 점점 더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만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심리학자 크레스피가 당근과 채찍이 효과를 내려면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져야 함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 우리말 유래 / 떡을할 못마땅함을 나타내거나 아무 뜻 없이 하는 말.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으레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해 온 선조들이 이때는 반드시 떡을 해서 바치는 데서 유래했다. 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야 할 만큼 뒤숭숭하고 곁은 일이 생겼다는 뜻으로 쓰던 말이다. '떡해 떡을 집안'도 같은 까닭에서 나왔다. ☆ 유머 / 오해 남편이 아내 눈을 쳐다보며 한 말. "당신은 정말 로또 같은 여자야." 아내가 감격해 "정말요?"라고 반색하자 남편의 대답. "그래, 하나도 안 맞아."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블록체인이요? 딱히 쓸 곳은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모 시중은행 디지털본부장은 무심한 듯 대답했다. 다른 은행에서 돌아온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모두 위에서 내려온 '디지털 초격차' 지시에 블록체인이니 인공지능이니 신기술 개발로 분주했지만,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 0이세돌 9단에게 4대 1로 이겼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산업계는 물론 금융계까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매달렸다. 2017년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 비트코인 거래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을 받았고, 블

록체인이 디지털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디지털에 민감한 금융권은 너도나도 관련 전문가 채용에 열을 올렸다. 공채 순환주의가 강한 은행도 외부 인사 영입에 망설임이 없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R&D 혁신센터를 세우고, 부서를 개편했다. 은행 앱에는 '인공지능 도입', '블록체인 도입' 광고 문구가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은행 고객들은 해당 기술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은행권이 최근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답은 고객 정보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협은행은 지금껏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전 세계 해커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올 하반기 완성시킬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이미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을 만들어 최근 1개월 동안 50건 이상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지금도 은행권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무자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였다. ATM기기 하나로 입·출금, 송금, 환전, 대출까지 가능한 나라는 선진국에서도 흔치 않다고 은행권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금융권에 남은 과제는 시스템 선진화보다는 고객 정보보호다. 금융권이 '왜'라는 질문에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망설임 없이 답하길 바라본다.

기자수첩



나경연 금융부/contest@

은행 디지털화, 그 방향성에 대하여

조원태-강성부, 누가 이길까

한진그룹을 둘러싼 지분 경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KCGI,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펀드는 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극에 달했던 작년 11월쯤 지분 매입을 단행했다. 그리고 지난 6월까지 8개월간 꾸준히 한진칼 주식을 사 모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것 같았던 이번 달은 최근까지도 강성부 펀드가 선전했다. 강성부 펀드와 한진칼 최대주주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차이는 2%포인트 미만으로 줄였다. 조원태 신임 한진그룹 회장(2.34%)과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의 지분을 합쳐도 강성부 펀드를 압도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사이 주가는 무려 60% 이상 올랐다. 지분 경쟁이 붙었다는 재료가 시장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결과다.

주가 상승은 조원태 회장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주가가 오를수록 금액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황은 해외 대형 항공사인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급변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조인트벤처(합작사)인 관계다. 항공사의 조인트벤처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운임과 스케줄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 비용을 배분하는 한 회사에 가까운 매우 강한 수준의 협력 단계이기 때문에 델타는 당연히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로 여겨졌다. 수개월간

데스크칼럼

이진우
자본시장2부장



의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 사실 이번 경쟁은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는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행동주의 펀드는 경영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행동주의 펀드가 원하는 것은 고배당 등의 주주친화정책을 얻어내는 것이지, 회사를 대신 경영하는 게 아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전형적인 사건은 미국의 '허벌라이프' 경우였다.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빌 애크먼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인 허벌라이프가 다단계 회사라며 주식을 공매도했다.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는 하락하고 회사는 곤경에 처한다. 따라서 공매도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사를 구한 건 회사 관계자도, 우호 주주도 아닌 헤지펀드 매니저인 댄 롱이었다. 그는 빌 애크먼의 주장이 틀렸다면 주식을 매집해 회사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자 국내에도 잘 알려진 칼 아이칸과 조지 소로스 등이 댄 롱 편에 서면서 빌 애크먼의 시도는 무산되고 만다. 빌 애크먼이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경영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기사였던 댄 롱이나 칼 아이칸, 조지 소

로스 등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원했던 것은 주가 차이와 배당 등의 금전적인 이익이었다.

해외사례와 행동주의 펀드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볼 때 당장은 강성부 펀드가 예시될 명분은 없다. 주가는 상승했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펀드는 30%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 초기 투자자들은 '대박'이지만, 나중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폭박'인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절망할 상황도 아니다. 델타가 '백기사'로 등장했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백기사 역할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앞으로 치열한 '여론전' 혹은 '노이즈 마케팅'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침묵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잠재적인 백기사나 흑기사의 마음을 어느 편이 사로잡느냐에 따라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분명 회사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여론전의 성격이 가진다.

그 과정에서 조 회장과 강성부 펀드 간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조 회장은 최근 "강성부 펀드가 찾아온다면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강성부 펀드의 만기가 14년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펀드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목표 수익률이 도달했을 때 먼저 상환하는 소위 '조기 상환'이고, 이는 강성부 펀드도 예외일 수는 없다. woo@

시설

일본 쇼크 최대 리스크, 멀어지는 경기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이 어떤 것이 될지는 분명치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커 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위급한 상황과 거리가 먼 원론적 대책이 그치고 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를 표적으로 삼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제한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덮쳐 왔다. 이미 통관이 중단됐고, 조만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로까지 몰릴 위기다. 반도체에서만 전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빼는 추가조치까지 예고했다.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주력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높에 빠진 경기의 회복 기대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내놓은 '경제동향 7월호'에서 또다시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초 '둔화' 단계에서 4월 '부진'으로 경고 수위를 높인 이래 4개월 연속이다. KDI는 투자가 계속 위축되고,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가 조금 늘기는 했으나 수요 회복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통상보복으로 인한 '반도체 쇼크'가 고려되지 않은 분석이고 보면, 경기하락 추세가 예상보다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길로만 가고 있다. 경기의 반등 요인은 찾기 어렵고, 사방에 하방 리스크만 가득하다.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률 목표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조정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2.1~2.2% 수준도 힘겨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일본과의 문제 해결이 급하고,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특단의 기업투자과 소비 촉진 대책, 통화정책 완화 및 확장적 재정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치권도 더 이상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몇 년째 국회에 발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수많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산업구조와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박병립의 중립, 직립

정치경제부 차장



반도체 소재, 단기·중장기 대책 함께

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수출규제가 된 소재와 관련해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예타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10년간 모두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국내 반도체 업체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3개월로 예상된다. 완제품 재고 한 달치를 합쳐도 국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은 4개월 남짓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즉 일본의 반도체 소재 대한민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리 길지 않다. 이 같은 시급함과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일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사태 해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10일 30대 그룹 총수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그간 기업을 만나 논의·정리된 대응 방향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이 고위급 면담 등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무진 면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의 우리 기술 경쟁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일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만년 적자다. 지난 5년간 봐도 76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30여 년 전부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정책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정부 지원책은 도움이 됐겠지만, 부족함도 드러났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단기 대책과 함께 우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절실하다. riby@



야유(挪揄)

뉴스를 통해 더러 야유를 보냈다니 야유를 퍼부었다니 하는 말을 듣는다. 야유는 '挪揄'라고 쓰는데 두 글자 다 '야유할 야', '야유할 유'라고 혼동할 뿐 특별히 다른 뜻이 없다. 손(手)의 의미를 가진 '扌'을 뺀 '耶'는 '어조사 야'라고 혼동한다. 감탄했을 때 '야-' 하는 어기(語氣)나, 따져 물을 때 '야!' 하는 어세(語勢), 혹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어, 어...' 하는 멍칠품 등 말에 어기나 어세를 담을 때 사용하는 어기조사인 것이다. 그런 어기조사 '耶'에 손짓을 나타내는 '扌'가 붙었으니 '挪'는 손짓을 동반하는 어기조사라는 의미를 갖는다. 샅대질이든, 포옹하는 시늉을 하는 손짓이든, 손짓과 함께하는 강한 기운의 말이 바로 '挪' 즉 '야유할 야'인 것이다. '揄'에 '扌'가 붙어 있다. '揄'는 '대답할 유'라고 혼동하는 글자인데 거기에 '손(扌)'이 붙어 있으니 '挪'는 대답을 하긴 하되 "응, 알았다고" 하면서 빈정대듯, "어쩔래?" 하면서 담비든 굶지 않은 손짓을 동반

하는 대답을 이르는 글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글자가 합쳐진 '挪揄'는 '남을 빈정거리 놀림. 또는 그런 말이나 몸짓'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었다.

挪揄는 중국 동진시대 권력자 환온(桓溫)의 막료로 있던 나우(羅友)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나우의 동료 환온에게 중용되어 고을의 태수로 나가는 환송연이 있는 날, 속이 뒤틀린 나우는 일부러 환송연에 늦게 도착했다. 환온이 늦은 까닭을 묻자, "오던 길에 도개비를 만났는데 그 도개비가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이 태수로 나가는 것을 송별하는 꼴만 봤지, 네가 태수로 나가는 꼴은 본 적이 없다'고 야유하며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도개비의 야유로 인해 생겨난 말인 '挪揄'를 오늘날에는 사람이 더 많이 하고 있다. 도개비 꼴로 해대는 야유보다는 사람답게 예의를 갖춰 토론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우리 집은 아이보리 톤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당연히...”



BESPOKE

4도어 키친핏

Cotta White +
Cotta Mint

가구를 맞추듯
가전을 맞추다 **BESPOKE**

